



생활체육, 삶의 엔도르핀을 높여라

‘4월 위기설’ 근거 없다... 한미 공조 재확인
평창 테스트이벤트 종료, 종합4위 희망 있다

제14회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

The 14th 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

ufi
Approved
Event

2017. 4. 26수-28금 EXCO (대구)



소방산업진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품목

소화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화재예방, 개인보호 장비

전시회

- 320업체 1,100부스
- 전국 226개 소방관서 등의 1,000여 명 구매담당자와 품목별 구매 상담회
- 글로벌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부대행사

- 취업설명회
- 조선시대 공중소방대 교대식
- 직장 자위소방대 소소심 경연대회
- 소방안전 퀴즈대회
-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소방안전박람회 마술 대회

컨퍼런스

- IoT를 접목한 스마트 소방장비 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용 CPVC배관 국제 세미나 소방산업기술원
- 국제협력 교류회의 소방산업기술원
- 한일 국제세미나 한국화재소방학회
-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방호조사와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방호조사와
- 한국 위험물학회 학술대회 방호조사와
- 119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세미나 119구급과
- 구급 상황 관리센터 업무 활성화 세미나 119구급과
- 청소년 소방안전교육 포럼 개최 119생활안전과
- 소방장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 소방산업기술원
- 소방항공대 안전관리 및 정책발전 세미나 소방장비항공과
- 2017 상반기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소방장비항공과
-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세미나 소방산업기술원

- 대의원 워크숍 한국소방시설협회
- 소방공사 표준 품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한국소방시설협회
- 2017 춘계학술대회 한국화재소방학회
- 학회 정기총회 한국화재소방학회
- 2017 소방안전기술 세미나 한국소방기술사회
-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정기 대의원 총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2017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학술논문 발표대회 한국화재감식협회
- 춘계 학술대회 한국응급구조학회
- 춘계 학술대회 한국화재조사학회
-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 대구 119 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대구소방안전본부
- 소방홍보 미래전략 개발 포럼 소방방재신문

어린이 체험행사

재미쏙쏙!!

119안전학습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 한국 119소년단 발대 및 안전체험 |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주최



국민안전처



대구광역시



주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사업자협회



문의: 053)601-5364



www.fireexpo.co.kr

나를 깨어 있게 하는 운동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중학생 시절 어느 경기 때였다. 후반 중반까지 0 대 2로 끌려가던 게임에서 죽어라 뛰어서 3 대 2로 역전승했다. 이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기를 하면서 팀을 위해 희생하면 팀의 성과로 나타나 내 희생 이상의 보상을 받거나 적어도 희생한 만큼 나 자신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내가 다른 구성원을 배려하면 그 배려가 팀을 돌고 돌아 결국 내게로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스포츠는 그렇게 내 성장기에 나를 성장시키는 양분이었다.

선수가 아닌 생활인으로 운동을 할 때도 번잡한 일상을 벗어난 편안함, 운동한 뒤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실었던 자유로움, 동료와 순간적 눈빛 교환으로 플레이를 완성했던 쾌감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다. 좋은 멤버들과 전술적 소통이 잘되는 경기를 하면 며칠 동안 긍정 정서가 지속되고 계속 운동할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게다가 가끔씩 평생에 걸쳐 절로 웃음 짓게 하는 플레이 기억까지 운동은 다른 활동에서는 도저히 얻지 못하는 심리적 경험을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운동에서 우리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결과 세 가지에 눈이 간다. 첫째, 시간이 없어서(46.7%), 건강 문제로(12.9%), 관심이 없어서(9.0%) 등의 이유로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둘째, 국민의 75%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하다는 인식 비율이 높다. 셋째 건강 유지 방법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섭취(44.7%), 휴식이나 수면(33.3%), 운동(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식사와 휴식이 중요하지만 운동은 시간이 없어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바쁜 우리에게 방송통신위원회(2015)의 1일 TV 평균 시청 시간이 191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겹쳐지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진다.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운동에서 멀어진다는 이유는 핑계였고 솔직히 말하면 단지 귀찮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운동과 멀어져가는 게으름을 체중계, 스마트폰, 운동 장비가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운동 효과를 체중 감량 정도로 평가한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힘들게 운동한다. 두 시간 열심히 운동해 2kg을 감량하면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물만 마셨는데 다음 날 2kg이 다시 늘어난다.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운동은 힘들기만 하고 체중 감량은 잘 안 되는 나쁜 활동이 돼버린다. 더 할 이유가 없다. 사실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운동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장비 마련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것을 통해 만족을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운동의 지속성은 운동하면서 얻는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운동 장비 마련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지속하려면 장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유니폼을 벗은 지 30년이 지났다. 여전히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또 배운다. 몇 해 전까지 해볼 만하던 20대 학생들이 이제는 버겁다. 학생들과 부딪히면 아프고, 스피드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점차 느려진다. 이제는 내 몸의 변화를 반영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체화했을 때 운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실로 운동은 나를 깨어 있게 한다.

윤영길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지금 만나러 갑니다, 67년 만의 귀향



파견민간인유족회

4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특별전 ‘67년 만의 귀향’전이 개막했다. 이 전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유품과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마련됐다. ‘봄이면 꽃이 피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번 봄에도 못 오시는가’ 되뇌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전사자 가족 할머니의 고백은 처절하고 안쓰럽다. 누군가의 아버지, 오빠, 형이었지만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했던 전사자들과 2000여 유품에 담긴 사연은 6월 11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포스트 페이스북 탭진 블로그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blog.naver.com/mcst_pr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위클리 공감 누리집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이나 제안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6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감 되새김 퀴즈'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를 이용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큐브빌딩 13층 (주)조선뉴스프레스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3909)

지난 호를 읽고



'활짝 피어라 꽃 산업' 특집 기사가 따뜻한 봄날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꽃 한 송이 구매하는 게 저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네요.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꽃을 구매해 식탁 분위기를 바꿔봐야겠어요. 많은 사람이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화훼산업이 다시 활짝 피어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화훼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전나현 | 서울 마포구 연희로

'취업대란, 창업 활성화로 극복한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경제 상황도 어렵긴 하지만, 소극적인 취업에 매달리기보다 도전 정신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창업 실전 노하우에 대한 접근 방식과 꼼꼼한 세부 정보까지 망라되어 있으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재준 | 울산 북구 아진로

생활정보에 실린 '착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처럼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별도의 심사 없이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거기다 특약만 가입하면 기존 보험의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착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로 가계지출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뻐합니다.

박석근 |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백세시대를 산다' 기사를 읽으며 웃음이 났어요. 딱 제 상황이니까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와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부모님 덕분에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저희 집 반찬까지 잘 챙겨주시니 저도 죄송스런 마음에 부모님 수고비를 좀 더 드리게 돼요. '부모니까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보다 '부모니까 더 신경 써야지'라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은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Quiz

공감 400호 되새김 퀴즈

정성껏 준비한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기사를 천천히 곱씹어 읽은 뒤 답을 찾아보세요.
정보도 얻고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01

주말 ○○○○○○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4700여 개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학과 수업이 없는 토요일마다 학교는 학생들의 운동 열기로 뜨겁고, 전국 수많은 학교가 활기에 넘친다.

02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행정, 교통, 방법 등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은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03

정부는 '집주인 ○○○○ 사업'을 확대한다. 임대료와 융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398호 퀴즈 정답

[창업, 호흡기, 고령자친화기업]

당첨자

김재준 | 울산 북구 아진로
박석근 |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박정은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전나현 | 서울 마포구 연희로

도전! 나도 해볼까?

제1회 한·일·중 3국 협력 UCC 공모전

공모 내용 한·일·중 3국 협력과 관련된 자유주제(예: 내가 경험한 한국·일본·중국, 한·일·중 3국 협력의 중요성, 우리가 꿈꾸는 한·일·중의 미래 등)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5월 31일까지

응모 방법 ① 영상은 제작 후 '#한일중', '#한중일', '#한일중 3국 협력' 등의 태그를 달아(권장) 유튜브에 동영상상을 업로드 ② 외교부 누리집(www.mofa.go.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다운 작성(UCC 업로드 URL 기입) 후 참가신청서를 메일(neact@mofa.go.kr)로 제출

수상 혜택 최우수상 1명 200만 원, 우수상 5명 각 80만 원, 장려상 20명 각 문화상품권 10만 원

유의 사항 다큐멘터리, 뉴스 보도, 패러디물, 애니메이션 기법 등 제약 없는 순수 창작물로 3분 이내 길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내레이션 및 자막 사용 가능

문의 외교부 동북아협력팀 02-2100-8144

제3회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

공모 내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서비스하는 전통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 공모

응모 자격 전국 대학(원)생 2~4명으로 구성된 팀(휴학생 및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접수 기간 5월 1일까지

응모 방법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story.ugyo.net)에서 접수

수상 혜택 대상 1팀 500만 원, 최우수상 1팀 200만 원, 우수상 1팀 100만 원, 장려상 5팀 각 40만 원

유의 사항 스토리테마파크(story.ugyo.net), 전통과 기록(portal.ugyo.net), 유교넷(www.ugyo.net)에 구축된 DB와 콘텐츠 활용할 것. 본 공모전은 교육형 공모전으로 선발된 팀은 5개월 동안 멘토 교육을 받은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됨

문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054-851-0754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공모 내용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자연환경 사랑 편지쓰기

응모 자격 초등학교 이상 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접수 기간 5월 8일까지

응모 방법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필수)를 공모전 누리집(www.k-lettercontest.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3, 7층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운영본부)

수상 혜택 어린이 부문·청소년 부문 대상 각 1명 100만 원, 금상 각 1명 70만 원, 은상 각 2명 각 50만 원씩, 동상 각 2명 각 30만 원씩, 장려상 각 4명 각 20만 원씩 / 대학생·일반인 부문 대상 1명 150만 원, 금상 1명 100만 원, 은상 2명 각 70만 원, 동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4명 각 30만 원 / 단체 부문 우수학교(어린이·청소년 부문) 4개 학교 각 50만 원 상당 상품, 우수교사 1명 20만 원 상당 상품

유의 사항 어린이, 청소년 부문 응모자는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입, 참가신청서, 편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를 동봉할 것. 분량은 편지지 1장 또는 워드 작성 시 A4 용지 1장 내외(글자 크기 13포인트, 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500자 내외)이며 1인 1작품에 한함

문의 공모전 담당자 02-2036-0836

Weekly

공감

No.400
2017.04.17



- 01 통窓
나를 깨어 있게 하는 운동
- 02 공감포토
지금 만나러 갑니다, 67년 만의 귀향
- 04 참여공감

포커스

- 08 외교안보 & 민생
대북 선제타격설·4월 전쟁설은 실체 없는 괴담
미 칼빈슨호 한반도 급파 “북한 추가 도발 제어”
- 10 세월호 인양·수습
선체 육상 거치 완료, 미수습자 수색체제 전환
- 11 AI·구제역 대책
AI 발생 즉시 최고 단계 ‘심각’ 발령



특집

생활체육 삶의 엔드르핀을 높여라

- 13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 국민 10명 중 6명 ‘오늘도 달린다!’
몸·정신 건강, 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까지...
생활체육 ‘1석 4조’ 효과
- 16 생활체육인 인터뷰
생활체육 인생 2막 홍금순 씨
출산 후 운동 나선 고영주 씨
자전거 예산론자 이종수 씨
은광여고 치어리딩부 오유경 양
- 20 당신의 주말을 깨워라!
퇴근한 직장인들이 달려가는 인기 동호회
살사댄스, 점핑하이, 컬링까지...
- 23 등산·헬스·자전거타기에도 예티켓 있어요!
“배낭에 꽂은 스틱은 흥기랍니다”
락카룸 셀카찍기, 2열 종대 라이딩... 민폐 ‘갑’
- 24 생활체육 강국은 지금
‘선수 육성’보다 ‘즐기는 체육’이 먼저,
청소년기부터 운동의 일상화 지원
- 26 공감카툰



이진수

표지 이야기

직장인 이종수 씨는 자전거 예산론자이다. 그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부터 그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종수 씨는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은 올리고, 교통비는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다. 출린 눈을 비비며 나서는 출근길,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아보는 건 어떨까.

발행일 2017.04.1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송수근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044-203-3014

제작협력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팩컴코리아

구독문의 및 주소변경(수신자부담) 080-906-4480



G-298

- 28 테스트이벤트 결산
테스트이벤트 성공 마무리
세계 4위 보인다!
- 32 평창인 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이재홍 KBS 아나운서
“통화연결음 녹음,
직업이 방송인데도 떨리더라고요”



정책공감

- 34 4차산업혁명
사람이 행복한 미래 도시 '스마티움'
- 36 보건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산업 종합대책 추진
- 38 주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문턱 대폭 낮춘다
- 40 안전
국민안전처,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지진 국민행동요령' 배포
- 41 생활정보
모바일 'e하늘'로 장례도 스마트하게!

행복공감

- 42 청년창업
소용량·소포장 '꿀의 고급화'
김은지 허니하우스 대표
- 44 공감인물
남극 전문가
홍종국 극지연구소 부소장
- 46 문화공감
기존 예술은 거부한다
예술가들의 실험무대 '대안공간'
- 49 사진으로 본 이 주의 역사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 50 여행
푸른 바다, 섬 속의 섬
우도 또는 가파도
- 54 관광
2017 세계경제포럼 평가 발표
한국 관광경쟁력 136개국 중 19위
- 55 정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전 국민에 개방
- 56 백세시대를 산다 18 웰다잉
피할 수 없는 죽음,
삶을 완성하는 계기로 만들자
- 58 역사탐방
'항쟁'의 조선 궁궐·왕릉 이야기 14
비운의 궁궐 경희궁
세계문화유산 종묘
- 60 문화, 지금
꽃, 사람이 있어 '문화'다
- 62 문화마당
이번 주엔 뭐 하고 놀지?
- 64 공感
꽃을 진정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대북 선제타격설·4월 전쟁설은 실체 없는 괴담 미 칼빈슨호 한반도 급파 ‘북한 추가 도발 제어’

북한 핵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유포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한반도 4월 위기·전쟁설’에 대해 “실체 없는 안보괴담”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주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논의가 이뤄지는 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과 4월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4월

중 이후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군사당국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민감하고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SNS 등에 유포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린다”며 “북한 폭격설, 전쟁 임박설 등은 실체가 없는 ‘안보괴담’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북 공조를 위한 한미 고위급 채널의 기밀한가동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그 결과를 사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방향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면서 “한미동맹

의 굳건함과 강력한 연대감을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미 공조 어느 때보다 긴밀, 코리아 패싱 우려 없어

한편 최근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급파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월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칼빈슨 항모 전단은 정기적으로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해당 해역에서의 전단 이동은 우리 군인들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특별한 목적은 없다”면서 “현재 그들의 위치에 근거해 무엇인가를 추측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다면 징벌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4월 9일 북한의 레드라인(금지선)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이) 어느 선을 넘으면 시리아처럼 대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4월 11일 밤(현지시간) 긴급 전화 회담을 가졌다고 미국 백악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SNS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4월 6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전격 급파했다. 9만3400t급의 칼빈슨호는 미국 제3함대 소속으로 FA-18E 수퍼호넷 전투기, E-2 조기경보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다.

관이 4월 12일 전격 공개했다. 두 정상은 4월 6~7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5일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양국이 북한 문제를 전례 없이 시급하고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에게 미국이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조해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2인자 펜스 부통령 방한,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는 4월 1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주 강력한 무적함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매우 강력한 잠수함도 갖고 있고 지구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북한이 말썽을 피우려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독자행동을 재차 강조했다. 독자행동의 의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최근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 13일 보도했다. 이번 타격경기는 북한 육해공군 특수전 부대원들이 무장헬기를 타고 우리 측 후방지역에 침투하는 훈련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4월 13일 현재 정례 브리핑

선거철 가짜뉴스 철저 단속,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2.6% 상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등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철통같이 지켜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자 국민 안전의 날”이라면서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 대비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해 우리의 안전문화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9일 실시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선이 가까울수록 빠르게 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 학계 등 민간과 협력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허위사실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4월 13일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상반기 2.6%·하반기 2.7%)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5%에서 0.1%p 올린 수치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것은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50억 달러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을 통해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있을 연합훈련은 실전 수준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절차로 전개되겠지만 유사 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전 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한미 군 당국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4월 11일 “위성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는 유선 협의를 통해 지난주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협력 방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동맹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도발 시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온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정당성과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㉔

선체 육상 거치 완료, 미수습자 수색체제 전환

정부는 4월 11일 세월호 선체를 육지로 완전 거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12일부터 세월호 선체 수색체제로 전환해, 미수습자 9명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드론을 띄워 세월호 선체 모습을 촬영했다. 선체 외부 고압세척으로 인한 세월호 선체 변형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영상 기록을 남긴 것이다. 선체 촬영을 마친 후 고압세척기 6대를 설치해 선체 외부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현재 왼쪽으로 누운 세월호는 수직 높이만 22m로 아파트 9층 높이에 달한다. 작업 과정에서 세월호 외부 선미 부근에서 안경이, 선체에 열린 틈에서는 파우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로써 세월호에서 발견된 뺏조각은 총 20점, 유류품은 104점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에는 워킹 타워 설치와 병행해 선체 내부를 소독하고 16~17일 이틀간은 선체 위해도 및 안전도 검사를 통해 가연성 가스의 존재 여부와 붕괴 위험성을 점검했다.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작업은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선체에 남아 있는 미수습자를 수색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체정리업체인 코리아샐베지, 선체조사위원회와 선체 수색 방안을 논의한 끝에 세월호 객실 부위의 미수습자를 수색하기 위한 진입로를 뚫기로 결정했다. 선체 훼손에 부정적이었던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측도 하루빨리 미수습자를 수색하기 위해 객실 부위에만 진입로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 미수습자나 유류품을 수색하려면 선 내에 쌓인 모든 것을 꺼내야만 한다. 때문에 작업자들이 드나들 진입로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수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월 14일 목포신항을 방문,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선체조사위원회와 선체 수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미수습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세월호 주변 해저면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를 설치했으며 상하이 샐비지

소속 잠수사들이 철제펜스 내부 3만 2000㎡를 수색 중이다. 수색 작업은 앞으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4월 11일 오후 4시경, 세월호 선체를 육지로 인양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조류가 강한 맹골수도 해역의 44m 수심에서 배 무게만 6825톤에 육박하는 대형선박을 절단 없이 인양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8일까지 세 차례 이송장비 테스트를 시행했다. 세월호 무게 추정치가 1만 3460톤에서 1만 7000톤까지 늘어나면서 모듈 트랜스포터를 456축에서 600축으로 추가 배치해 세월호를 완전히 부양해 육상 거치하는 데 성공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라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미수습자 분들을 가족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미수습자 수색·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현** | 위클리공감 기자

신경



4월 13일 오후 목포신항만에서 코리아샐베지 직원들이 크레인용 이용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세척과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척과 방역, 안정장비 설치 등의 작업을 한 뒤 미수습자 9명을 수색할 방침이다.

AI 발생 즉시 최고 단계 '심각' 발령

정부는 앞으로 겨울철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최고 수준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만 심각 단계가 발동됐다.

또 AI 위험지역에서 겨울철 닭·오리 농가에 대한 강제적인 휴업 조치가 이뤄지며, 밀집된 가금 사육단지를 재편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주변에 가금농장 신설을 금지하고 취약 농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시기와 지역에 사육제한 명령제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방역 주체의 방역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 개선대책의 핵심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경보 단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기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됐다. 이 제도를 개선해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도록 바

꾼 것이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매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AI 발생 농장 또는 지역에 휴업을 강제하는 사육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AI가 창궐하는 겨울철에 사육 제한에 참여하는 육용오리·토종닭 농가에 시설 개선 등 축산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계열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 대응 위해 지자체장 권한 강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범위도 재설정했다. 현재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장 500m나 3km 내 지역의 가축을 검역본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협의한 이후 살처분 여부를 결정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책도 포함됐다. 우선 마리당 0.05㎡인 산란계 정적 사육면적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075㎡ 수준까지 넓힌다. 또 사육시설 기준에 케이지 높이와 통로 간격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한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AI·구제역 방역 주요 개선 내용

현행	개선
현행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로 총력 대응 미흡	●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인력 부족 등으로 살처분 지연	●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시·도 요청 시)
철새 도래기인 동절기 AI 상시 발생	●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 제한 유도 -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 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
AI 발생 위험지역에서 가금 사육 집중	●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양성농가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으로 신고 기피 우려	●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 감액을 20% 감경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
AI·구제역 반복 발생 농장 제재 수단 미비	●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AI 백신 유사 시 대비 검토 미흡	● AI 백신 전문팀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6월까지 접종 타당성 등 결정
살처분과 매몰 위주 조치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부담 증가	● 수매병행,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 활용 사체 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생활체육

삶의 엔드르핀을
높여라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 국민 10명 중 6명 '오늘도 달린다'

몸·정신 건강, 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까지... 생활체육 '1석 4조' 효과

야외활동 하기 좋은 계절. 밖으로 나가면 쉽게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생활체육인'. 학생은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장인은 근린공원에서, 주부와 은퇴자는 생활체육광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린다. 이제는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의 시대다. 자신의 몸·정신 건강을 챙기면서 경제 파급 효과까지 톡톡히 내는 이들이 무려 국민 10명 중 6명에 달한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일생생활에서 하는 체육·스포츠 활동을 뜻한다. 보통 계절과 장소, 그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는 걷기, 자전거타기, 헬스 등이 꼽히지만 종목의 제한은 없다.

하지만 기존의 체육·스포츠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 기존의 것이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쟁스포츠였다면 생활체육은 어린이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체육이라는 점이다.

강효민 강원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는 생활체육을 “놀이하는 사람들의 문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놀이가 있는 생활체육은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의 확산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질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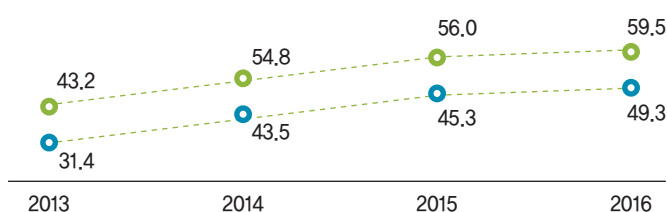
실제로 생활체육 효과는 뇌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증명됐다. 생활운동을 꾸준히 할 경우 우울증을 낮추고, 기억력을 증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신경내분비전달물질 5가지(BDNF, 도파민, β-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4, 국민 생활체육 진흥 세미나).

이 같은 효과를 체감한 사람도 있다. 서대문구 아현동에 거주하는 주부 김희정(36) 씨는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 지인의 권유로 짬짬이 안산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몸매 관리는 물론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면서 “밖으로 나가보니 생활체육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형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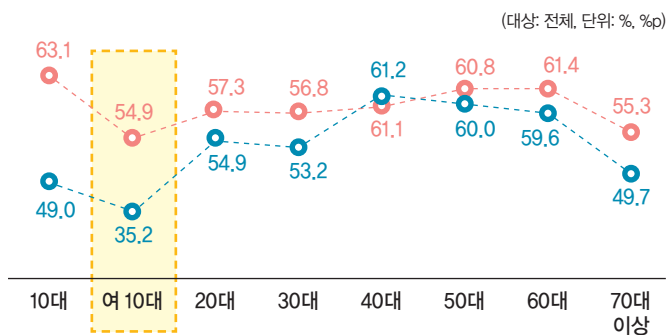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 효과

효과는 비단 심신 안정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41조 원에 육박한다. 이 중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으로 추산된다.

생활체육 참여율 추이 - 주1회 이상 - 주2회 이상 (대상: 전체, 단위: %)



연령대별 생활체육 참여율 및 참여 빈도(주1회 이상) - 2015 - 2016 (대상: 전체, 단위: %, %p)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포츠개발원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 스포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44~49%이며, 스포츠산업 이외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51~56%에 이를 정도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생활체육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의료비, 즉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은 올해 말이면 만 65세의 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서는 특히 노인의 의료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적 의

로 재정 부담이자 노후 빈곤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노인 의료비는 21조 3615억 원(보건복지부) 규모다.

대구가톨릭대학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에서 지난 2015년 발표한 ‘65세 이상 성인의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신체 활동량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문체부의 2014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 활동으로 인해 의료비가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2.0%에 달했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지원책, 체육 참여도 높여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파급 효과까지 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문체부 실시 2016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9.5%, 이는 지난 2013년(42.3%)에 비해 약 40%나 증가한 수치로, 10명 중 6명꼴로 매주 1회(이상) 30분(이상) 운동한다는 얘기다(일상생활 걷기 및 학생의 정규 체육 수업 제외).

이처럼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정부에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낡은 시설 개보수, 지역 스포츠클럽 확대 등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생활체육 참여 정책은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 이후 등 생애주기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정책이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특히 청소년기와 은퇴기 이후 세대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 10대의 참여도 수치가 눈에 띄는데, 63.1%가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해 다른 연령층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4.1%p 상승한 수치로,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10대 여학생의 참여율은 54.9%로 2015년 35.2%보다 대폭 상승(19.7%p)했다. 이는 2016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하도록 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로 해석된다.

70대 이상 참여율 또한 55.3%로 2016년 대비 5.6%p 증가해 10대

다음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은퇴기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일상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체조’, ‘걷기’ 등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로 추측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1번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응답자(70.5%)가 참여하는 체육 종목(1~3순위)은 2015년과 동일하게 ‘걷기’(35.6%), ‘등산’(16.7%), ‘보디빌딩’(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체조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응답자의 5.3%가 체조에 참여해 2015년과 대비(2.6%)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이는 승부 중심의 경기 종목을 위주로 하는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체조, 걷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데 따른 긍정적인 변화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방위적 효과도 검증됐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생활체육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시간 부족’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시설 접근성’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기존 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기초생활체육의 저변 확산을 위해 ▲ 생애 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 생활체육광장 운영 ▲ 스포츠클럽 확대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의 국민체육센터(현재까지 220개소 지원, 2017년 12개소 지원 예정)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현재까지 194개소 지원, 2017년 20개소 지원 예정)의 건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정책'

국민체력 100(국민체력인증제)

"내 체력은 몇 등급? 무료로 진단 받고 메달도 판다!"

일정 기준 이상의 체력 수준을 달성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하고 연령별 기준에 의해 인증하며,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알려준다. 등급이 높으면 소정의 메달도 수여한다.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100세 시대 스포츠 복지 서비스로, 지난 2016년 전국 31개소 국민체력센터에서 16만 1122명이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았다.

'국민체력 100' 사업에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누리집(nfa.sports.re.kr)을 통한 인터넷 예약 및 전화(02-410-1014) 또는 전국 체력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찾아가는 국민체력 100'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생업에 바쁜 택시기사 등과 같이 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출장 서비스다.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개소

체력 측정은 어디서? 전국 31개소, 올해 6곳 추가 계획

'국민체력 100' 서비스는 각 지역의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문을 열었으며 현재 지역밀착형 거점으로서 전국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추가로 6군데가 더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 사업 대상으로 서울(동작), 경기(성남, 의정부), 부산(사상), 경북(안동), 전남(나주) 등 총 6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올해 초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총 15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공간(시설) 확보와 접근성, 운영 여건 및 이용 활성화방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학교 스포츠클럽 · 종합스포츠클럽

청소년, 은퇴 선수 체육활동 체계적 지원

자라는 체육 꿈나무,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학교 스포츠클럽 정책이다. 학생의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정부의 지원 아래

발전을 거듭해왔다. 교내 활동, 방과 후 교내 또는 교외 활동, 토요 활동(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여학생 생활체육교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학교 체육 지원이 더욱 활기를 띠 예정이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2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팀 스포츠 종목을 확대 보급하며, 협동심을 배양하는 국토순례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진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5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은퇴 선수 법인 등 지도자 단체를 지원해 체육 선수환 기틀을 마련한다.

동호인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과 제도 개선 정책도 있다. 생활체육 동호인 최대 축제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고, 동호인클럽의 연중 풀 리그전 운영, 대통령기 등의 전국 규모 동호인 행사 및 시도 규모 동호인 행사를 지원한다.

야외체력관리교실

노년층 무료 체력관리·실버스포츠 종목 확대 보급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있다. 노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실버스포츠 종목을 17개로 확대 보급하며, 이를 통해 가족 및 세대 친화를 위한 맞춤형 3세대 가족 축제를 펼친다. 이 밖에도 노년층 체력을 관리해주는 '야외체력관리교실'을 전국 120곳에서 운영하며,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를 전년 대비 120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남녀노소 생활체육인의 대축제! 매년 약 6만 명 참가 열기

생활체육인이 매년 기다리는 축제의 장이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 제주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시, 도를 순회하며 개최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행사로 50여 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며 체육인, 임원, 재외동포, 관광객 및 도민 등 6만여 명이 참가하는 축제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17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44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생활체육
인생2막
홍금순 씨

“병원도 못 고친 압박골절, 라인댄스로 고쳤죠”

연습실 문틈 사이로 경쾌한 음악이 새어 나왔다. 문을 열자, 약 스무 명의 인원이 줄 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청 청소년수련관 GX룸. “하나 둘~ 하나 둘~.” 구호에 맞춰 율동을 하던 이들은 이따금씩 “어이쿠, 시원해!”라는 탄성을 뿜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들은 대부분 어르신들.

“이곳에 운동하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70~80대입니다. 제가 가장 젊을걸요(웃음.)” 맨 앞줄에서 가장 크게 동작을 하던 홍금순(69)씨의 말이다.

홍 씨는 한때 의류사업가였다. 1970년대 시작한 사업은 날로 번창해 영등포에서 점포 세 개를 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뇌진탕에 허리 압박 골절에다가... 병상에 꼬박 3년 누워 있었으니까 말 다했죠.”

병원에서도 완쾌는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집에서 손자만 돌보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 한 분이 집에 놀러와다가 제 예전 앨범을 보더니 ‘아니, 이렇게 끼가 많은데 왜 집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취미로 무용을 조금 했거든요, 그분이 동네 복지관을 소개해주셨죠.”

라인댄스에 입문하게 된 계기다.

“한 몇 개월쯤 배웠을까. 어느 날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뼈가 갑작같이 맞춰진 거죠. 수술로도 안 되던 걸 운동으로 고친 거예요.”

그는 노년층에게 라인댄스가 특히 좋다고 권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짝을 맞춰서 뛰어야 하는 스포츠댄스와는 다르게, 가로 세로 일곱 줄씩 맞춰서 움직이지만 하면 됩니다. 방향을 바꿔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요. 그러면서도 큰 무리는 안 가는 동작이에요.”

홍 씨는 라인댄스 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다고 했다.

“건강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충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포 이효리예요. 마포 이효리 하면, 홍금순! 딱 나오죠. 호호호.”

구청에 오는 회원들은 평균 4년 정도 배웠다고 한다. 대부분 장기 회원인 셈이다.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다.

우연한 기회에 배우게 된 라인댄스. 하다 보니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그는 노인체육지도자 과정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는 복지관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용돈 벌이까지 하고 있다”며 웃었다.

“지난 연말에 사위가 그러더

라고요. 장모님, 병원에 갔던 영수증 좀 주세요, 라고. 내가 답했지.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어딴? 호호호.”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이미지출처



이미지출처

노년층 “관절, 근육 무리 없는 ‘걷기’부터 제안”

처음부터 라인댄스나 체조를 배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걷기를 추천한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걷기’의 경우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참여한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참여도가 높았다. 걷기는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몸을 유연하게 해준다. 걷기의 효능으로는 치매와 우울증 예방, 심폐기능 향상, 혈액순환 촉진, 고지혈증 완화, 고혈압 예방, 스트레스 저하, 동맥경화증 예방, 비만 방지 등이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 예방 운동법이 있다.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치매가 진행된 상태라도 비교적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들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http://www.ni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산 후
운동 나선
고영주 씨

“두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수변공원서 심신 가꾸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 그 사이로 그보다 좀 더 진한 분홍색으로 차려입은 고영주(37) 씨가 달려왔다. 30분째 뛰는 중이라고 했지만 숨찬 기색이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수변공원은 이른 오전인데도 조강을 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고 씨는 틈틈이 집 안 밖에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그야말로 생활체육 마니아다.

그는 여섯 살된 아들과 네 살 짜리 딸을 뒀다. 아이들은

각각 오전 9시, 9시 30분에 어린이집으로 간다. 그리고 3시에 돌아온다. 그 사이 시간은 자유시간. 그는 오롯이 생활체육에 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을 때는 수변공원에 와서 조강을 하거나, 집 근처 반석산이나 만의사까지 등산을 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윗몸일으키기 등을 하죠. 운동 선수처럼 단박에 하는 건 아니고요. 5개 하고 설거지하고, 10개 하고 빨래 개고, 이런 식으로 하루 50개를 채웁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엎드려서 힘업 운동을 함께 하고요.”

출산 후 20kg이나 불어난 체중을 금세 되돌린 비결이기도 하다.

고 씨는 선수급으로 볼링을 즐겼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했다. 온 가족 취미는 자연히 볼링이었고 수영, 육상, 스키 등도 함께 즐겼다. 고 씨 또한 아이들 교육 방침 중 하나가 ‘생활체육 즐기기’다. 그는 “내가 해보니까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운동이 하나 있으면 그만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남들보다 적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이미지출처
C영성미디어

하잖아요. 청소년기 자칫 방황할 시기의 빈틈도 운동으로 메웠던 것 같아요.”

그는 특히 주부들은 생활체육을 즐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 직장에 따라, 또는 학군에 따라 이사를 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줄 아는 운동이 있다면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기가 용이해요. 그 지역 엄마들이랑 빨리 친해져야 교육 정보 등을 얻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저 또한 동탄으로 이사 오면서 볼링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하는 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곳은 신도시라서 공원들이 잘 조성돼 있긴 한데, 폴리우레탄이 깔린 공원이 거의 없어 아쉬워요. 주부들은 골다공증이 많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뛰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시설이 잘 정비되면 좀 더 많은 주부들이 공원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주부 “출산 후 약해진 뼈,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주부, 특히 출산 후에는 피부 노화, 우울증, 심장병, 골다공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타기, 빨리 걷기, 수영 등이 좋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상이 있으면 과격한 테니스나 겨울 산행 같은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한다.

자전거
예찬론자
이종수 씨

“자전거 출퇴근으로 체력은 올리고 교통비는 줄이고!”

경기 수원시 인탑스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종수(40) 씨는 출근길이 즐겁다. 매일 아침 새하얀 벚꽃이 핀 독방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정장을 입고 자전거를 타느라 불편할 법도 하지만 그는 자전거를 탈 때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순간에는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풍경을 바라보기도 한다.

날마다 반복되는 출근길이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부터 그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분이다. 이종수 씨는 “밤새 덜 풀렸던 피로가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면서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가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시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체력이 갈수록 떨어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렇지만 직장인으로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자전거가 떠올랐다. 이종수 씨는 “자전거는 녹색교통수단인 동시에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면서 “생활체육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데, 자전거 타기는 그야말로 적합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예찬론자로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벌써 그를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회사 동료만 세 명이다. 이들은 휴가철이면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2016년 가을에는 일본 돗토리 현으로 자전거 일주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종수 씨는 이렇게 말한다. “자전거를 타면서 동료애도 더욱 돈독해지고 훨씬 건강해졌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 관절이 아플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을



이대영/공감

정도예요.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겨 회사일도 신바람 나게 하고 있지요. 한 달에 교통비만 10만 원 이상 줄이게 돼 저축하는 기분까지 들어요.”

실제로 자전거 타기는 운동 효과가 매우 뛰어난 편이다.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 발달은 물론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무릎 주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율적인데 자전거 타기가 여기에 적합하다. 주부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방법이 자전거 타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자전거는 친환경적 이동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직장인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직장인들은 평상시에 운동을 할 여유가 별로 없어 효과적인 운동법이 필요하다. 평소 운동으로 몸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쉬는 시간에 1kg 아령이나 물을 채운 500ml 페트병 등의 도구를 활용해 관절 주위 근육을 자극하는 게 좋다. 40대부터는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체중이 늘기 쉽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8kg의 하중이 실린다고 보면 된다. 주말을 이용해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등으로 꾸준히 체중을 관리해야 한다. 장시간 근무로 경직된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플라이오, 기구를 활용한 필라테스 등 스트레칭 운동도 추천한다.

은광여고
치어리딩부
오유경 양

“주말 생활체육학교 덕에 치어리더의 꿈 키워요”

서울 강남구 은광여고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가 되면 교실에 불이 켜진다. 여고생들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교실로 모여든다. 졸린 것도 잠시, 친구들과 서로 손바닥을 치며 활기차게 인사를 나눈다. 어느새 교실은 학생들의 웃음과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찬다. 7시 30분이 되자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무릎을 잡고 어깨를 양쪽으로 비틀거나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 근육을 풀어준다. 치어리딩 수업은 두 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기술 및 체력 훈련과 안무 연습 등을 주로 한다.

학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

다. 이곳에서는 매주 특별한 생활체육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종목은 바로 치어리딩이다.

은광여고 치어리딩부의 리더 오유경 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과서 공부 아닌 운동을 친구들과 함께하니 우정이 더욱 깊어졌다”며 “치어리딩을 하면서부터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은광여고 치어리딩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수는 30여 명. 치어리딩은 미국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리더십 개발, 다이어트 효과 등을 인정받으며 학교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은광여고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로 선정됐다. 주말 생활체육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4700여 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말 생활체육학교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체육 열풍이 불면서 학교마다 활기가 넘친다.

오유경 양은 “점수를 신경 써야 하는 체육 과목과는 별도로, 또는 운동신경과 상관 없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 생활체

육의 장점”이라며 “특히 치어리딩은 단체 운동이라 협동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학생들도 점점 치어리딩에 빠져들었다. 학생들은 텀블링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이도의 점프까지 모두 소화한다.

은광여고 치어리딩부는 올해 여름에 열리는 ‘서울시교육감배 치어리딩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오유경 양의 말이다. “치어리딩이라고 하면 야구장에서 짧은 치마 입은 치어리더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치어리딩은 건강은 물론 팀워크를 길러주는 생활체육입니다. 게다가 관중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이 치어리딩의 진정한 매력 같아요. 주말 생활체육학교를 통해 치어리더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청소년 “성장기에 도움 되는 운동이 중요해”

청소년은 주당 최소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의 강도가 강할 경우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운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학생이라면 가볍게 준비 운동을 30분 정도 실시한 뒤 이어서 고강도 운동을 20~3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추천 종목은 달리기, 자전거 타기, 줄넘기, 수영, 구기 종목과 같이 성장기에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특히 줄넘기는 성장판에 자극을 줘 뼈의 성장을 돕는다. 축구, 농구 등 구기 종목은 단체 운동으로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운동 중 부상을 막기 위해 성인의 감독하에 운동을 실시하거나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신의 주말을 깨워라! 퇴근한 직장인들이 달려가는 인기 동호회 살사댄스, 점핑하이, 컬링까지...

평일 밤과 주말 스포츠를 즐기고 싶지만 혼자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늘고 있다.
주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단골손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체육 참여시간은 저녁 6~10시 사이가 36.3%로 가장 높았다.
당신의 밤잠을 잊게 해줄 만큼 신바람 나게 만드는 동호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점핑하이스카이7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효과를 동시에”

점핑하이스카이7은 충남 홍성군의 점핑댄스를 하는 신중 동호회다. 점핑댄스란 1인용 트램폴린 위에서 뛰며 다양한 체조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점핑댄스는 체코에서 시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2014년에 처음 소개됐다. 국제적으로는 점핑피트니스협회가 창설돼 있으며 한국에는 점핑피트니스 코리아 지부 산하 '점핑하이협회'가 조직돼 전국적으로 66개 지부에서 점핑댄스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 수만 200여 명. 에어로빅과 유사한 운동답게 회원 대다수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유치원생부터 70대까지 폭넓

다. 동호인들은 주중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에 모여 점핑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 현재 점핑하이스카이는 홍성군 생활체육회 소속 동호회로 활동 중이다.

동호회를 이끄는 노운서 씨는 점핑댄스를 능가할 만한 역동적인 생활스포츠는 흔치 않다며 점핑댄스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노운서 씨의 말이다.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트램폴린 위에서 많은 사람과 뛰다보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복부비만 관리, 다이어트에 좋아 주부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동작도 배우기 어렵지 않아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점핑하이스카이7' 동호회 회원들이 공연하고 있는 모습





'블라덴 2030' 동호회 회원들이 살사댄스를 추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블라덴 2030

점핑댄스는 바닥이 아닌 트램폴린 위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무릎 관절이 약한 노약자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72세로 동호회 최연장자인 오계자 씨는 “땀도 재미나게 날 만큼 신나는 운동”이라며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라도 연습을 빠지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고 운동 효과도 좋다”고 말했다. 이 동호회는 주기적인 연습 외에도 창단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열리는 체조경연대회나 각종 행사 초청 공연에 응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기구체조 부문에 참가, 점핑댄스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는 기구체조 부문 2위에 오르며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봉주 마라톤대회, 공주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초청받아 점핑댄스를 선보인 적도 있다. 점핑댄스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홍성 지역에도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점핑댄스 강좌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도 등장했다.

홍성군보건소는 올해 군민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점핑강좌를 운영했고, 생활체육회 역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노윤서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점핑댄스에 매력을 느낀 이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몸무게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블라덴 2030

“화려한 스텝, 살사댄스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요즘 20~30대 직장인들이 활력 있으면서도 차별화된 즐길 거리로 각광받는 것이 댄스 분야다. 과거에는 사교댄스라고 불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이 최근 몇 년간 인식 변화를 통해 많이 대중화됐다. ‘블라덴 2030’은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서 모임을 갖는 라틴 댄스 동호회다. 라틴 댄스를 대표하는 살사댄스는 쿠바에서 시작된 4분의 4박자 ‘살사’라는 장르의 음악에 맞춰 추는 춤이다. 살사댄

스는 마을 축제나 파티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가족끼리 일을 하다 잠시 쉬면서도 출 만큼 대중적인 남미 댄스다. 기본 동작은 남녀가 마주 서서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기본 스텝과 손을 엇갈려 잡은 후 복잡한 회전을 섞은 응용동작으로 구성된다. ‘블라덴 2030’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는 300여 명이다. 대부분 20~30대 직장인이다.

동호회 회원들은 살사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흥겨운 음악에 푹 파묻혀 사람들과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언짢은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동호회에서 살사댄스를 가르치는 남규민 강사의 말이다. “한국에 처음 살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남녀 간의 사교댄스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춤바람 나면 패가망신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사는 자신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체육입니다.”

살사댄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 운동의 효과가 탁월하다. 직장인들은 다양한 동작을 통해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육 단련, 노화 방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비트와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만족감도 느낄 수 있다. 살사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기회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살사댄스를 즐기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화려한 무대의상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퇴근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와서 즐기는 회원들이 대다수다. 살사는 육체와 정신 건강에 좋기로 잘 알려져 있다. 춤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살사는 ‘걷는 춤’이기 때문이다. 스텝에 맞춰 앞뒤로 잘 걸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다. 남규민 강사는 “음악에 맞춰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고, 스텝을 하나씩 밟다보면 직장생활로 쌓인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며 “이 정도로 흥겨운 유산소운동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강사는 살사를 자신의 끼와 감정을 표현하는 춤이라고 설명

했다. 하지만 살사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추는 춤이기 때문에 팀워크도 중요하다.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한 살사댄스 동호회 회원들, 이들에게 살사댄스는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이자 새로운 사교의 장이 되고 있다.

강릉컬링클럽

“평창동계올림픽 종목을 생활체육으로 발전시켜야”

강원도 강릉시에는 특별한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에서는 직장인 컬링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컬링 경기를 비롯한 빙상 종목의 경기가 강릉에서 열린다. 컬링은 각각 네 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둥글고 납작한 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 안에 넣으면 득점하는 경기 종목이다. 강릉의 대표적인 컬링 동호회인 ‘강릉컬링클럽’의 회원 수는 20여명. 회원 수는 주부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강릉빙상장에 모여 두 시간가량 컬링 경기를 한다.

컬링을 하는 데 특별한 개인 장비는 필요치 않다. 규칙은 간단해 하루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현재 컬링 동호회는 강릉에서만 강릉컬링클럽, 흥제동, 주문진 교사들로 구성된 용문클럽, 솔향클럽 등 1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컬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강릉에서는 읍·면·동별 컬링 동호회 대항전도 열린다. 강릉컬링클럽 천인선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적합한 운동이 컬링”이라면서 “빙판을 닦으며 스톤의 속도를 조절하는 스윙핑은 특히 운동 효과가 크고,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릴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운동이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컬링은 유독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컬링을 처음 시작할 때 형제, 자매 또는 부모들과 함께해 프로 선수가 된 경우도 있고, 가족이 함께 컬링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한다.

컬링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어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이다. 현재 캐나다에는 컬링장이 1500개, 미국은 150개, 일본이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노년층이 컬링을 많이 하고 있다. 천인선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 적합한 동계 스포츠가 바로 컬링”이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계 스포츠가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컬링 종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대규모 사업장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 컬링 동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강릉컬링클럽 동호회 회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빙상장에 모여 컬링을 즐긴다.

무료로 즐기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프로그램

주최	종목	대상	접수	문의
서울시체육회 강남구	검도	초등학생	4월 26일까지	02-3462-7330
서울시체육회 강남구	수상스키	초등학생	4월 30일까지	02-3462-7330
서울시체육회 노원구	수영	초등학생 고학년	5월 19일까지	02-952-3433
부산시체육회 해운대구	수영	초등학생 고학년	4월 30일까지	051-704-5010
대전시체육회 서구	볼링	중학생	4월 21일까지	042-537-1197
경기도체육회 부천시	야구	초등학생	4월 30일까지	032-666-0361
강원도체육회 화천군	키누	초등학생	4월 29일까지	033-440-2052
충남체육회 예산군	탁구	초등학생	4월 28일까지	041-331-7330
전남체육회 목포시	골프	중학생	4월 28일까지	061-274-7330
전남체육회 함평군	수상스키	초등학생 고학년	4월 28일까지	061-322-3390
경북체육회 안동시	방송댄스	초등학생	4월 29일까지	054-854-7330

자료 | 대한체육회

등산·헬스·자전거타기에도 에티켓 있어요 “배낭에 꽂은 스틱은 흥기랍니다” 락커룸 셀카찍기, 2열 종대 라이딩... 민폐 ‘갑’

혼자 하는 운동에도 지켜야 할 게 있다. 생활체육 종목으로 선호되는 등산, 헬스, 자전거타기의 에티켓을 정리해봤다.

등산

• 정상에서 ‘야호!’ 하지 마세요

산에서 고성을 내면 야생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조류의 경우 산란을 포기하거나 부화 중인 알을 깨뜨린다고 한다.

• 등산 스틱은 몸 앞쪽에 소지

등산 스틱의 촉이 위로 가게 배낭에 휴대하면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등산 전과 후 이러한 가방을 메고 봄비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때문에 스틱은 배낭에 달지 말고 몸 앞쪽으로 들고 있는 게 좋다.

또한 등산이 끝난 후 버스나 지하철에서 등산화를 벗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악취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쓰레기 보면 줍는 여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쓰레기 배출량은 2008년 2774톤에서 2011년 1997톤, 2015년 1298톤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로 곳곳에서 쓰레기를 볼 수 있다. 국립공원 2015년 3분기 쓰레기 배출량은 472톤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버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남이 흘린 것을 줍는 자세도 필요하다.

• 등산할 땐 올라가는 사람이 먼저

산에서는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를 중시한다. 등산객에게 인사하기, 음악을 틀고 다니지 않기, 올라오는 사람에게 우선 양보하기, 음주 자제하기 등 이미 등산객들 대부분은 이러한 예

티켓을 알고 있다.

• 음주, 흡연은 절대 삼가야

특히 산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산불 총 1885건 가운데 31%인 585건이 3월에 발생했는데, 이 중 입산자의 흡연, 취사 등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경우가 679건(3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산악 사고가 실족인데, 그 이유가 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헬스

• 운동 후 기구는 제자리에

헬스장 내 운동 기구는 모두 공용이라는 걸 명심하자.

• 락커룸에서 셀카 찍지 마세요

락커룸은 옷을 갈아입는 장소다.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 기구 옆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단 묻자

잠시 기구에서 떨어져 땀을 닦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난감하다. 기구 옆에 누군가가 서 있다면 사용이 끝났는지 묻자.

• 기구 사용 후에는 닦아놓자

운동 시에는 수건이나 물티슈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구에 남은 땀자국을 닦아주면 다음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쾌하지 않다.

자전거타기

• 자전거 도로에선 우측 통행

우측으로 붙어서 원편으로 뒷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 추월할 땐 좌측으로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너무 빠르거나 가깝게 붙어서 하지 말자. ‘지나갑니다’라는 말 한마디나 가볍게 ‘따릉’ 하고 울려주면 앞사람이 놀라지 않는다.

• 친구들과 나란히 달리지 않기

커플이나 친구끼리 나란히 달리면 뒷사람에게 엄청난 민폐다.

• 갑작스런 차선 변경 및 정지는 삼가야

자전거는 깜빡이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때문에 뒤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중요하다. 차선을 바꾸거나 정지할 때는 뒤에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한 뒤 실행한다.

• 음악은 이어폰 대신 스피커로

운행 중 전화 통화나 문자는 자전거를 세운 뒤에 하는 게 안전하다. 또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쓰면 뒷사람의 경적 소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낫다.

•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앞뒤 라이트가 필수다. 앞 라이트는 밑으로 향하게 해서 반대 쪽 사람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배려한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생활체육 강국은 지금 ‘선수 육성’보다 ‘즐기는 체육’이 먼저, 청소년기부터 운동의 일상화 지원



생활체육의 정보 제공과 교육에 초점 맞춘 정책



미국 건강사회와 체육지도자연맹

미국에서는
방과 후에
농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미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관련기관은 ‘대통령 직속 신체활동·스포츠·영양위원회’와 ‘미국 건강사회와 체육지도자연맹’이 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생활체육 및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정부 기구다. 체육지도자연맹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자문 내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미국의 생활체육 정책은 국민들에게 체육 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한국의 국민생활체육회 및 회원단체가 공적인 분야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운동선수, 요리사, 의사, 체육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의견은 건강보건의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모든 미국인을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끈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대표 프로그램인 ‘대통령 직속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은 지도자들에게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정책이다.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신체활동 입문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건강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하루에 최소 60분 이상 운동하도록 장려하며 운동 기능을 향상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나는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다.

체육지도자연맹은 미국에서 가장 큰 생활체육 단체다. 2만 명 이상의 교수들이 소속돼 있으며 5개 분과와 6개 지역협회, 연구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 협회의 목표는 신체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개발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체육지도자연맹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각 연령별로 알맞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실시에 대한 안내서를 꾸준히 제작, 배포한다.



젊은이들이 최소 30분 이상, 매주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국의 생활체육은 ‘스포츠잉글랜드’와 ‘영국스포츠레크리에이션연맹’이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잉글랜드는 정부 산하단체로 생활체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및 단체를 지원하고 스포츠 시설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고 있다. 스포츠잉글랜드는 국가기관, 국가스포츠단체, 학교, 지자체 등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종목별 스포츠 단체를 관리한다. 주요 사업은 크게 국가, 지역사회, 청소년, 장애인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잉글랜드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특히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단체는 14~25세의 젊은 층이 최소한 30분 이상, 매주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모든 지역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전국에 49개의 스포츠 협력단체가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단위의 스포츠를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국가 단위의 생활체육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스포츠레크리에이션연맹은 영국에 있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단체들을 대표해 이들 각 단체를 관리하는 연맹이다. 소속된 단체는 게임과 스포츠, 신체활동 및 댄스, 수상스포츠, 주요 관람스포츠, 아웃도어스포츠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모두 320여 개다. 영국



영국에서 한
남성이 복싱을
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연맹은 비영리 단체로 정부 독립기관이다. 레저·문화까지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회원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스포츠레크리에이션연맹은 메이저 스포츠 대회 유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클럽의 행정 자문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비영리 스포츠클럽 약 10만 개... “오후 1시 이후엔 스포츠”



국가 주도의 독일 스포츠 정책은 학교 체육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 독일에서는 체육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독일정부는 스포츠를 여가 선용, 건강 증진, 교육,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국제교육 등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고 스포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이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스포츠클럽(Sportverein)’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스포츠클럽은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이며 공동체 의식, 팀 정신, 사회 참여 등 사회적 덕목을 중요시한다. 독일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에는 9만 10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있고 회원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독일 인구(8070만 명)의 29%에 해당한다.

독일의 스포츠클럽 시스템은 19세기에 만들어졌다. ‘체조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얀이 1816년 체조뿐만 아니라 달리기·던지기·수영·격투기 등 다양한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한 게 시초다. 2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체조 클럽만 150여 개가 생겼는데, 이때부터 일상 속에서 운동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72년 뮌헨올림픽을 전후로 신체를 단련한다는 뜻의 ‘트림(Trimm) 운동’이 보급됐다. 이 기간 약 800만 명의 독일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했다. 동·서독으로 분단됐을 때도 클럽 시스템은 두 나라에서 똑같이 유지됐다. 1990년 통일 이후 스포츠클럽은 2만 개로 늘었다.

독일 클럽은 스폰서의 후원과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독일체육과학연구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성인 한 사람당 한 달에 6.2유로(약 7달러)를 회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역 기업이 후원 계약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지원한다.

국가 주도의 스포츠 정책은 학교 체육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힘든 스포츠 종목은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진행되

기도 하며, 지역 스포츠클럽 전문 체육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기도 한다. 일례로 바이에른 주는 2001년 ‘오후 1시 이후엔 스포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와 클럽의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체육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포츠 인재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우수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



프랑스 초등학교, 매주 수요일 오후는 ‘스포츠를 위한 시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의 나라, 프랑스 체육법 1조는 ‘스포츠는 교육·문화·통합·사회 유지의 중요한 요소’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프랑스 또한 스포츠클럽이 잘 발달해 있다. 클럽 수는 16만 4000개에 이르고, 축구·테니스·승마·유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체육부 직속의 체육담당국을 시도에 설치해 지역 단위의 엘리트체육을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생활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클럽을 중심으로 육성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지역체육 진흥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특히 체육관, 수영장 등 지역 체육시설의 건립, 체육클럽에 대한 지원, 체육클럽의 시설 유지에 대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각 체육 종목 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전문 선수로 육성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다. 종목별 체육협회는 클럽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이는 선수를 선발해 대회에 출전시킨다. 프랑스올림픽위원회와 종목별 중앙체육협회는 각 지역에 설치한 위원회를 통해 전문 선수를 선발하고 양성한다.

프랑스의 학교체육은 신체 연마와 함께 스포츠·예술 활동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보충한다. 특히 각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을 비워놓는다. ⑥

김태형·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자료 |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



각 종목 스포츠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은 전문선수로 육성된다.







김보름

테스트이벤트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로 질주하는
김보름(왼쪽)

테스트이벤트 성공 마무리 세계 4위 보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테스트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우리 대표선수들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빙상 종목뿐만 아니라 눈 위에서 펼쳐지는 설상 종목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평창군민의 열띤 응원과 참여는 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

4월 20일까지 열리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가 마무리된다. 테스트이벤트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였다.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재점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수준 높은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동계올림픽, 더 나아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커졌다.

올해 2월부터 열린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 스피드스케이팅,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스키점프, 피겨스케이팅, 컬링, 루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봅슬레이, 스켈레톤, 아이스하키 등 올림픽 124개 경기와 휠체어컬링,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스키, 장애인아이스하키 등 패럴림픽 49개 경기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평창과 강릉에서 치러진 테스트이벤트는 지역 주민의 열성적인 참여가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평창군이 “3월 말까지 3만 7000명이 넘는 관중이 참관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고 소개할 정도로 특히 평창군민의 참여가 뜨거웠다.

한국 금메달 8개, 세계 4위 가능성 보았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쟁력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대표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김보름, 이승훈의 금메달이 기대되며,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5~6개의 금메달을 내다보고 있다.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스켈레톤, 봅슬레이 등 썰매 종목에서도 1개 정도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게다가 스노보드와 여자 컬링의 메달권 진입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빙상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설상 종목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김보름은 여자 매스스타트 최강자로 꼽히며, 이번 테스트이벤트에서 확실한 전략과 실력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김보름은 2월 12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 시즌 월드



컵 1~4차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휩쓸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금메달 1순위임을 확인했다. 내년엔 올림픽이 열릴 강릉에서 세계선수권대회까지 석권함으로써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자신감을 높였다.

설상 부문에서 한국 크로스컨트리팀의 간판 이채원이 월드컵 12위에 등극한 것도 큰 수확이다. 설상 종목은 뚜렷한 강자가 없어 동계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린 테스트이벤트에서 크로스컨트리 대표팀의 맏언니 이채원이 한국 크로스컨트리의 역사를 새로 써 평창동계올림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채원은 2월 4일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여자 스키애슬론 15km에서 46분 2초 7로 12위에 올랐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 선수의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날 29명의 출전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이채원은 끈질긴 지구력으로 선두권에서 경기를 펼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놀라운 실력 상승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놀라운 실력 향상은 동계올림픽의 흥행 역시 하기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걸음마 단계였던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는 급속한 속도를 내는 스프린터처럼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강릉에서 열린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4부 리그)에서 전승 우승을 달성했다. 새러 머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지난 8일 강릉에서 폐막한 이 대회 최종전(5차전)에서 네덜란드를 2 대 0으로 꺾고 5전

5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다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 단계 높은 디비전 1 그룹 B(3부 리그)에서 뛰게 됐다. 한국은 이번 대회 다섯 경기에서 6개 참가국 중 최다득점(21점), 최소실점(3점)을 기록하며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 2001년생 3인방 김희원, 엄수연, 이은지가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등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한 단계 상승했다.

동계올림픽의 꽃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스타 탄생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피겨퀸' 김연아의 뒤를 이을 최다빈의 선전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났다.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간판 최다빈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톱 10'에 들며 금의환향했다. 그는 핀란드 헬싱키 하르트발 아레나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 선수권 여자 싱글에서 총점 191.11점을 받고 종합 10위에 올라, 10위까지 주어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이번 테스트이벤트에서는 패럴림픽 준비도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장애인 스노보드 경기, 2017 정선 IPS 스노보드



경포 세계불꽃축제



K-드라마 페스타

월드컵 파이널에 19개국의 선수 10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다뤘다. 세계 랭킹 1위 크리스 보스(남자, 네덜란드), 세실 헤르난데스 세르베론(여자, 프랑스) 선수 등이 출전해 최정상급 기량을 선보였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2017 정선 세계 장애인 알파인스키 월드컵 파이널에는 23개국 230여 명이 출전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설상 코스에 만족감을 표시해 대회 준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단 안내, 차량 관리, 음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에 나섰으며,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도 투입되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뒤따랐다.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ICT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4차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5세대(5G) 기반의 통신기술이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3개국 올림픽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평창-도쿄-베이징을 잇는 아시아 문화 교류의 신호탄인 셈이다.

문화올림픽, 세계에 알리

이런 취지에서 테스트이벤트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한껏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G-1년(개최 365일 전)에 집중적으로 열린 행사는 국민에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렸다.

우선 'G-1년 올림픽 페스티벌 개막식'은 강원도민의 성공 개최 의지가 담긴 행사였다. 올림픽 개최를 꼭 1년 앞둔 2월 9일 강릉 하키센터에서는 G-1년 올림픽 페스티벌 개막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개

막식에서는 강원도 내 예술단체가 총출동해 강원도의 문화를 소개하는 무대를 꾸몄다. 전국에서 모인 2018명의 합창단과 국악 소녀 송소희의 협연으로 '강원도 아리랑', 'Butterfly' 등의 노래가 울려퍼

졌다.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We are the Champions'를 배경으로 피겨퀸 김연아가 성화봉을 공개하고, 성화봉을 크로스컨트리 유망주인 김마그너스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큰 감동을 줬다.

G-1년 올림픽 페스티벌에 한류가 빠질 수 없다. 2월 18일 평창 용평 돔에서는 강원도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K-드라마 페스타 인 평창'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릉의 위인 신사임당을 소재로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갈라쇼가 열려 주연배우 이영애와 오윤아가 우리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소개했다. 또 '겨울연가', '가을동화', '도깨비' 등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상을 상영해 인기를 끌었다. 한국 스타 가수들이 출연한 케이팝 공연과 드라마 OST 공연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고구려 밴드가 정선아리랑 공연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매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외국인 3000여 명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공연은 188개국에 방영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에 알렸다.

관광 강릉 염원으로 빛난 '세계불꽃축제'

2월 11일 경포 해변의 '세계불꽃축제'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동·하계올림픽을 번갈아 개최하는 동아시아 3개국이 참여했다. 해외 불꽃축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일본팀과 중국팀이 화려한 불꽃 쇼를 선보이고 한국은 멀티미디어 불꽃 쇼를 펼쳤다. 이날 축제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5만 명이 경포 해변을 찾았다. 이밖에도 '평창 겨울음악제' '평창 비엔날레와 강릉 신날레' 등 다채로운 국제문화축제가 열려 연인원 28만여명이 다녀가는 성장을 이루며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G**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검증, 국제인증 등 완벽 준비 마무리

테스트이벤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건설 중인 12개 경기장 가운데 11개 경기장이 국제인증을 받았다. 마지막 남은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은 오는 7월 국제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경기장의 경쟁력을 소개한다.



■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빙면의 온도와 얼음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해 테스트이벤트 당시 신기록이 쏟아졌다. 국내 최대의 기둥 없는 공간 건축물로 세워 공간 활용성과 기능성을 최적화했다. 관람석은 지그재그로 배치해 최대한 시야를 확보했다. 최고의 빙질을 위해 스크류 냉동기 등 최첨단 제빙시설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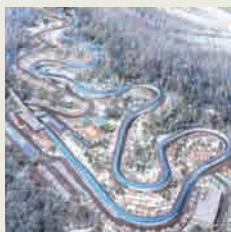
■ 강릉 하키센터

테스트이벤트 때 바로 눈앞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인기를 끌었다. 관람석이 아이스링크와 1.6m로 가까워 생동감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해체와 조립이 용이한 분절 개념의 구조인 모듈 설계를 적용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제송공조기를 설치해 최적의 제송은 물론 에너지 절감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 관동 하키센터

테스트이벤트에서 아이스하키에 최적화된 경기장이란 평가를 받았다. 아이스링크 바닥에 온도 센서를 설치해 아이스하키 경기에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빙 시스템을 갖췄다. 국내 최초의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으로, 동계올림픽 이후 시민종합체육관으로의 활용을 감안해 4층 관람석을 철거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만들었다.



■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는 레이저로 철판을 잘라 기초 뼈대를 제작하는 레이저 커팅 기술과 냉동배관 모양을 성형하는 자동밴딩 기술, 냉동배관을 자동용접하는 자동용접 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됐다. 무엇보다 공기를 18개월이나 단축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공장에서 제작·설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가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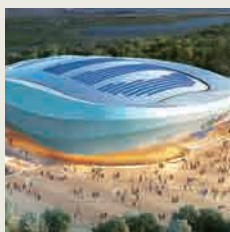
■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국내 최대 규모의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3년 이상 소요된 공사를 단 3개월에 끝마쳐 국제스키연맹과 IOC를 놀라게 했다. 기간만 짧았던 것이 아니다. 우수한 시공 능력과 품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 스키점프센터

스키점프는 규정에 따라 풍속 5m/s 이상에서는 경기가 취소된다. 이에 20m/s의 풍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15m/s의 풍속이 30초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방풍네트가 내려오도록 돼 있다. 테스트이벤트에서 최대 18m/s의 강풍이 발생했으나 완벽한 최첨단 방풍시설로 대회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빙면 온도가 달라야 하는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를 위해 3시간 만에 빙면의 온도 변화가 가능하도록 최첨단 제빙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 코퍼헤드 레이저 스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공법을 적용해 빙면의 두께를 편차 없이 제빙할 수 있다.



■ 정선 알파인 경기장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녀 통합 코스를 조성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대표적 스키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활강 코스와 활강 연습 코스, 회전 코스와 회전연습 코스로 조성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현재 85%의 공정률로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자료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이재홍 KBS 아나운서

“통화연결음 녹음, 직업이 방송인데도 떨리더라고요”

이재홍 아나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주말까지 짝 찬 스케줄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평창과 관련된 일이라면 주저 없이 달려갈 정도. 재능기부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있는 이재홍 KBS 아나운서를 만났다.

이재홍 아나운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연이 깊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열린 세 번의 행사에서 매번 사회를 맡았다. 오랜 시간 평창의 도전을 지켜봐서인지 이재홍 아나운서는 평창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평창이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됐어요. 저는 유치에 두 번째로 실패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행사장에 있던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유치에 실패하자 그곳에 모인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죠. 그 모습을 보고 ‘평창이 이렇게 간절히 동계올림픽 유치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평창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본 이재홍 아나운서는 그 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행사에는 거의 참석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이재홍 아나운서의 남다른 열정을 알아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에게 홍보대사 자리를 제안했다.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지만 평창을 홍보하는 멘트가 담긴 통화연결음 녹음했던 일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꼽았다.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도 떨리고 부담됐어요. 아나운서 입사시험을 다시 치르는 기분이었습니까. 20~30초 정도 간단한 멘트를 녹음하는 건데도 말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보니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녹음을 진행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통화연결음을 녹음하는 이재홍 아나운서

는 분이 오케이를 해도 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녹음을 했죠. 처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통화연결음을 요청하셨는데 나중에는 행정자치부 등 많은 정부기관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연결음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에 이어 2017년 1월에도 한번 더 녹음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었죠.”

이재홍 아나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답게 동계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다. 스키를 워낙 좋아해 매년 용평으로 휴가를 떠날 정도.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목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본다.

“이번 올림픽에는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외에도 국민에게 임팩트를 줄 만한 종목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썰매 종목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썰매 종목은 코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많이 타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자질도 충분한 데다 홈트랙이라는 이점을 잘 살릴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나 봅슬레이의 원윤종, 서영우, 오제환, 김진수 선수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해요. 평창에서 메달을 따서 그동안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 덕분에 올림픽이 때마다 늘 현장에 있었다. 올림픽 중계를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몸소 느꼈다.

“올림픽은 축제예요. 나라에서 올림픽 흥행을 위해 애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축제를 즐겁게 만드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데는 축제를 즐기는 우리 국민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행사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을지 물었다. 이재홍 아나운서는 한참 뒤에 있을 폐회식을 꼽았다.

“저는 올림픽 폐회식이 기다려져요. 폐회식을 할 때의 분위기가 그 올림픽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해주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많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폐회식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폐회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누구보다 뿌듯할 거예요.”

장기현 | 위클리공감 기자

배우 김우빈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인기배우 김우빈(28)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4월 13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평창 주사무소에서 김우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우빈 씨는 앞으로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행사와 온라인 홍보, 광고 등에 참여해 대회를 홍보하고 올림픽 열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범 위원장은 이날 위촉패를 전달하며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평창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우빈 씨는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람이 행복한 미래 도시 ‘스마티움’에 가봤더니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발효장치, 태양광 발전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집 앞에 차를 세우면 차가 스스로 주차를 한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안면 인식으로 현관문을 지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밥술에는 갓 지은 밥이 기다리는 집. 공상과학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미래 도시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삶의 모든 것이 센서 또는 인간의 제스처로 이뤄지는 스마트시티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곳, ‘스마티움’에 다녀왔다.

지난 4월 6일 서울 강남에 도시 개발 역사와 주요 스마트 기술을 한 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더 스마티움’이 문을 열었다. ‘더 스마티움’은 스마트와 뮤지엄을 합해서 만든 이름이다. 기존에 친환경 주택 홍보관으로 운영했던 ‘더 그린관’을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을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행정, 교통, 방범 등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형 도시를 말한다. 나라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목표가 달라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만 120여 개에 달한다.

120여 가지 스마트시티 기술 소개, 솔루션 월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사람이 행복한 도시’다. 스마트움 1층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전시관에서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날 수 있었다. 스마트시티에 진입하기 전 엔터런스 존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설명한 동영상 보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공간에서 스마트시티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전시관에 들어서니 대형 터치스크린인 ‘솔루션

월’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솔루션 월은 물 순환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 안심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에서 사용하는 120여 가지 기술을 37가지로 구분해 데이터 큐브로 형상화한 것이다. 벽면을 뚫고 떠다니는 큐브를 가볍게 터치하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 관리법을 볼 수 있다.

전시관 중앙에 있는 미디어테이블에서는 관람객이 동탄2신도시 통합운영센터 관리자가 돼 도시에서 발생한 문제가 스마트 기술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체험해볼 수 있다. 도로 정체 대응법을 담은 큐브를 갖다 대니 미디어테이블 가운데에 영상이 뜬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에 정체 현상이 생기면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로 정보를 수집한다.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서나 병원 등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근처에 있는 차량에 교통 정보를 제공해서 우회하는

길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미디어테이블 안쪽 공간에는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도시 관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던 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발효장치’다.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발효장치는 미생물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한 다음 발효



옥상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 발효장치



시간을 거쳐 퇴비로 만든다. 경기 용인 동천스마트타운과 서울 LH수서단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LH수서단지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바이오 발효장치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90.8%까지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이 모델은 쿠웨이트 등 외국 바이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수출을 논의 중이다.

1층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관람하고 난 다음 옥상으로 이동했다.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기와 태양열 집열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낮 시간 동안 집열판으로 모은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해 물을 데우는 등 태양열에너지가 스마트시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스마트움 1층에 마련된 스마트시티 전시관. 2 스마트움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3 VR을 통해 도시에서 쓰이는 스마트 기술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4. 3층에 있는 스마트홈 전시관

수작동 없이 음성과 제스처로 가전제품 제어

옥상에서 친환경에너지 장치를 보고 난 후 3층에 있는 스마트홈 전시관으로 이동했다. 관람객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스마트홈 전시관은 실제 주택처럼 꾸며졌다. 기상부터 취침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8개 기술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홈에서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국내 스타트업의 가전제품을 볼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공간 인간이 일일이 제어했던 기능을 음성이나 제스처를 통해 집 안에서 쓰는 기계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 손짓 한 번으로 TV를 켜고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스마트 거울로 그날의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식이다.

스마트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 결로가 발생하면 외부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탄소 발열체를 가동해 결로를 해결하거나, 집 안에 이산화탄소가 1만 ppm 이상 감지되면 공기

청정기에서 산소가 배출되는 공기 정화 시스템 등 쾌적한 삶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기기가 구비돼 있다.

스마트움에서 만난 관람객 최은주 씨는 “스마트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마트움에서 처음 알게 됐다. 집 안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움은 4월 말부터 관람객에게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해줄 도슨트를 배치할 예정이다. 스마트움 방문은 스마트움 누리집(thegreen.lh.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장기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스마트움은요...

위치 서울 강남구 방고개로 206(자곡동 370번지)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일요일 휴무

문의전화 02-459-1971

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산업 종합대책 추진 바이오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린다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큰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바로 바이오 의약품. 이런 가운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바이오코리아 2017'이 성대하게 열렸다. 역동적인 성장세에 발맞춰 정부는 보건산업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셀트리온 제2공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주광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5명이 이곳을 찾았다.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한 바이오 제약기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제품인 ‘램시마’처럼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 의약품이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산업인 바이오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성책과 민간의 꾸준한 혁신 노력이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2002년 설립된 제약사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램시마’는 이미 2년 전 유럽 지역에 출시돼 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처방받은 신효성이 높은 제품이다.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도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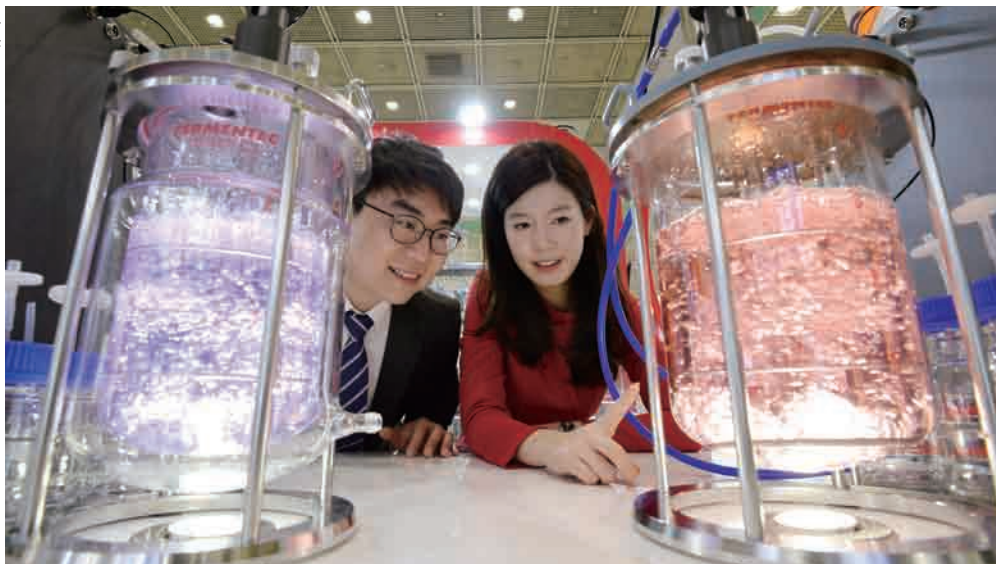
현장 간담회에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세포 치료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72시간 이내인데 이 같은 바이오 의약품을 보다 많이 수출하려면 시설과 기술이 함께 수출(터키)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바이오 제약기업이 현지 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술 이전을 협의할 때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10월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제약사로 탈바꿈하는 제약업계, 보건산업 수출액 전년 대비 19% 증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도 보건산업 분야 수출액이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예상 수출액은 114억 달러.

보건산업 중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다. 국내 주요 제약업체가 ‘바이오 제약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이

뉴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7'에서 참관객들이 퍼멘텍의 미생물 배양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증명한다. 그동안 인공 합성 의약품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해왔던 제약사들은 최근 3~4년 사이에 바이오 신약 개발, 백신 생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신규 바이오 제약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는 올해 '한국 제약바이오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회원사 196개사 중 바이오 의약품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54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의료 R&D 혁신, 제약산업 육성, 빅데이터 활용 강화 등을 주요 전략 방향으로 잡은 '제2차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2018~2022)'과 '제2차 보건의료 R&D 중·장기 종합계획(2018~2022)'을 올해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 2017'이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생태계 혁신'.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상호 협력·투자를 촉진하는 등 그동안 국내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올해는 ▲규제 개선 ▲기술 혁신 ▲자본 투자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혁신을 중심으로 45개국 6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550여 개 전시 부스와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됐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이슈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컨퍼런스, 국내외 참가 기업 간 네트워크 확장 및 기술 거래의 장인 비즈니스 포럼 등이 열렸다. 기술 거래와 투자 활성화, 제약·의료기기 기업 홍보, 일자리 알선 등에 특화된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최신 보건산업 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생태계 혁신

여러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25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세계 바이오헬스 기업의 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상호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 바이오협회인 오스바이오텍(AusBiotech)과 호주 무역투자대표부가 인솔하는 호주 사절단에는

용어 설명

바이오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와 단백질 등 생물물질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인공 합성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인공 합성 의약품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 의약품이다.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때문에 인체 내에 흡수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말한다.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 240억 원 계약 성사

정부와 제약업계 간의 협력이 원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큰 성과도 나오고 있다. 국내 신약 개발 벤처기업인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 24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데 기여했다(2016년 11월). 또 국내 바이오 벤처인 크리스탈지노믹스와 캐나다 기업 간 약 3500억 원 규모의 급성백혈병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도 지원했다(2016년 6월).

이 밖에 '케이파르마 아카데미(K-Pharma Academy)'를 통한 정부 간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파르마 아카데미는 국내 제약산업의 인지도 및 의약품 인허가 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항구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허가 간소화를 합의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위원회는 의약품 인허가 담당 직원을 2013년부터 케이파르마 아카데미에 매년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5월 이란 국민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양국 정부 간, 민간 간 MO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MOM(Minute Of Meeting, 합의의사록)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란의 7개 병원 건설 사업(총 6200개 병상, 20억 달러 규모)을 추진 중인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기업이 우선 협상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경쟁 국가들(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등)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태동기 바이오 의약품 R&D 집중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연계형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등 첨단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622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아울러 현장·실무형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18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호주 유망 바이오 기업 10곳이 참가해 한국 파트너를 찾았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바이오 창업·연구 지원기관인 '마스 이노베이션(MaRS Innovation)'을 포함해 서니브룩연구소, 토론토아동병원, 토론토대학 등은 사업 연구물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에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제5회 하이 코리아 인베스트 페어 2017'이 함께 열렸다. 인베스트 페어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기업과 투자기관 간 일대일 투자 상담, 기업 설명회 및 투자 전략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39개 국내 투자기관과 영국의 대표적 헬스케어 투자기관인 '브라이트스타파트너스' 등 13개 해외 기관이 참여했다. ⑥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문턱 대폭 낮춘다

도배·장판 교체 등 경수선 가능, 민간업체 참여 허용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집주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기존 집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수선하는 경우 역시 사업 참여 자격을 준다. 또 민간업체의 참여도 허용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한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료와 용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주택을 신축, 경수선, 매입하게 함으로써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한다.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하고 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지만,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시 수익성 부족으로 공

급 수가 64가구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80%→85%로 상향

우선 사업 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포함한다. 또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80%에서 85%로 상향하고 투룸 건축 허용, 기금융자 한도 상향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주인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방식도 마련했다.

주택의 건설·개량은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행 방식이 가능하다. 이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 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의 관여 없이 건축하기를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 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한글
영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입주 모습.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장판·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용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허용된다.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방식은 LH 추천형과 개별 신청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와 공동주택을 확보한다. 기금용자 가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 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개별 신청형은 종전처럼 매수 대상 주택을 사업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수 대상 선정 후의 매매 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수익성 위해 투룸 임대 허용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와 용자 조건을 개선하고 투룸 임대도 허용한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하고, 다세대 외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확대해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 건설도 허용한다. 기금용자 한도 역시 늘어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당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용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했다. 월가 방식으로 매입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췄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 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계획서가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접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4월 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 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 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㉔

이정현 | 위클리공감 기자

문답으로 정리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범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제도 개선의 효과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사비 절감 등을 시도했으나 일정 수준의 임대주택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수취 임대료 수준을 기존에 비해 5%p 상향(80%→85%)하고 경수선 도입 등 상품도 다양화한 만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건축형을 집주인이 비거주하는 경우만 허용한 이유는?

“표준건축형은 집주인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주택 품질을 확보하면서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면 시범사업처럼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과거 시범사업 시 집주인이 고급 외장재 설치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화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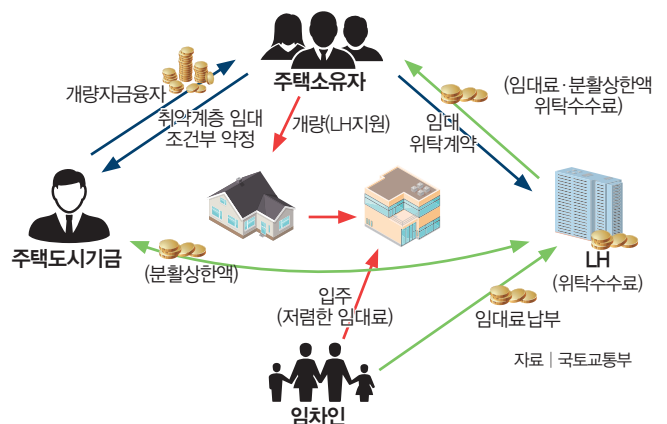
건설·개량 방식 중 경수선형의 범위는?

“경수선이란 건축 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 공사, 창호·단열·난방 공사, 누수 보수 및 방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민간제안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집주인 임대주택은 1순위 대학생·독거노인, 2순위 대학원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3순위 일반인에게 공급되며, 민간제안형도 동일한 순위 기준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개요

국민안전처,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지진 국민행동요령' 배포 전국 1만 683개 대피소 정보·대피 요령 소개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제공,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소와 행동수칙 등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모았다.

지진 또는 지진해일(쓰나미)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는 4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정보를 공개했다. 또 지진 대피법 등을 담은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대피소 현황은 지진 발생 시 긴급 대피를 위해 지정한 옥외 대피소 7683개소와 장기간의 구호를 위해 지정한 실내 구호소 2377개소, 그리고 지진해일에 대비해 지정한 강원·경북·부산·울산 지역 내 긴급 대피 장소 623개소다. 총 1만 683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이 대피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지진 대피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디자인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는 올해 3분기까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피 장소 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재난안전 데이터포털(data.mpss.go.kr),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 4월 중순 서비스 예정) 누리집에 접속해 '지진 옥외 대피소',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 등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하면 지진 대피소 정보 외에 긴급 재난 문자, 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 서비스는 '지진 옥외 대피소'와 '지진 실내 구호소' 정보를 우선 제공하며, 야산 등 위치 정보 재정비가 필요한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는 5월 초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서도 지진 대피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대피 장소 정보 제공 외에도 지진 대피 요령 및 일반 상식 등을 수록한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와 리플릿을 제작, 3월 말 현재 191만 부를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북(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배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G



은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북(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배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G

백승규 | 위클리 공감 기자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체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며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자료 | 국민안전처

모바일 '에하늘'로 장례도 스마트하게! “3km 내 장례식장·화장시설·묘지 안내 부고 문자 보내기도”

장례는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 과정으로 심신이 힘들지만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일이다. 정부가 유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운영해온 온라인 '에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제 모바일로도 서비스한다.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장례용품 가격 정보 등의 장례 통합 서비스를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에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모바일 웹(mhaneul.go.kr)으로 확대했다.

'에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 예약 편의 제공, 화장시설의 투명성 확보, 장례 문화와 시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10월 구축됐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검색·비교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의 가격 정보, 위치 등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화장시설 확인

'에하늘' 시스템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통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모바일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반경 3km 내의 가까운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 장사시설 정보를 제공받는다.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전경(사진), 위치, 연락처, 편의시설 등 자세한 시설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또 화장시설별로 원하는 일자과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화장 예약 신청'은 불가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체기술을 마련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는 예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PC에서 가능).

그 외에 장례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람에게 장례 절차, 부고(조의) 문자 보내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인 정보, 빈소, 발인 일시,



부고 내용을 입력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로 복사돼 주소록에서 받을 사람을 선택해 발송할 수 있다. 부고 문자를 받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빈소, 장례식장 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장례 절차나 문상 인사말 등 장례 문화가 조문객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다. 알기 쉬운 문상 방법, 부의 봉투 작성 방법, 문상 인사말 등 문상의 기본적인 예절 정보를 제공한다. ㉠

전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장례 후 조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는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시·구·읍·면·동 기관에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가까운 시·구·읍·면·동 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자격 자녀, 배우자 등 1순위 상속인 신청(1순위 없을 경우 2순위, 3순위 증명서류 필요),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결과 확인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금융: 금융감독원(www.fss.or.kr)

●국세: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장사 관련 상담 '에하늘 장사도우미' 1577-4129

소용량·소포장 ‘꿀의 고급화’

김은지 허니하우스 대표

“건강 꿀이 ‘홈 앤드 리빙’으로 녹아들게 할 거예요”

꽃이 피면 꿀이 나온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허니하우스’의
꿀은 진짜 꽃에서 나온다. 꽃이 활짝 피어나는 형상의 디자인으로
꿀을 포장한 것. 달달한 성공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김은지 대표는 마치 꿀을 모으는 꿀벌 같다.



‘허니하우스’의 꿀은 꽃에서 나온다. 화사한 꽃 모양의 포장지 열리면 꿀이 나타난다. 뚜껑을 열어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먹어보면 달콤함의 깊이가 느껴진다. 화려함과 달콤함이 조화를 이룬 포장기술은 디자인 출원을 등록해놓은 상태다. 단순한 꿀 한 통 같지만 여기에는 아버지와 딸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아버지가 질 좋은 상품을 만들고 딸이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꿀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허니하우스’ 김은지(37) 대표의 아버지는 양봉업에 종사한다. 아버지는 꽃 따라 벌 따라 40여 년을 보냈다. 올곧고 깐깐한 아버지가 꿀을 만드는 과정은 고되다. 겨우내 벌을 관리하고 꽃 피는 봄이 되면 향기를 따라 길을 나선다. 벌통을 가득 실은 트럭은 밤새 달려 깨끗하고 맑은 밀원으로 향한다. 꽃이 만개한 곳에 벌통을 풀어놓으면 벌은 달콤한 꿀을 가져다준다. 벌은 휴대전화 전자파에 예민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닌다. 아버지는 벌빛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벌빛에 의지하며 외로움과 싸운다.

이런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꿀은 시장에서 저평가받았다. 김 대표는 아버지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꿀’ 창업을 결심했다. 사실 김 대표는 안 해본 일이 없다. 텔레마케팅, 레스토랑, 방문판매, 의류매장 등 실패를 거듭했다. ‘칠전팔기’ 정신으로 다시 창업을 결심했지만 어설픈다면 또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엄습했다. 실패는 더 이상 혼자의 몫이 아니었다. 꿀을 만드는 아버지의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였다.



전 세계 어디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 만들 것

그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사관학교(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수업을 받으며 그동안의 창업이 왜 실패했는지 알게 됐다.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하게 도전한 결과였다.

“그동안 잘 모르고 창업에 뛰어들어 실패한 거예요. 공부를 할수록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창업을 점검하며 고객의 니즈를 채우는 방법을 터득해나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결석 한 번 하지 않았다. 졸업할 때 그는 창업지원금을 손에 거머쥔 수 있었다. 배움으로 무장한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수많은 형태의 제품이 존재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 뛰어들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했다. 김 대표는 시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중에서 만나는 꿀은 천편일률적인 용기에 포장돼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디자인이 판매

고를 좌우하는 상황이지만 꿀 시장에는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소용량·소포장으로 ‘꿀의 고급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지 않는가. 맛은 이미 보장됐으니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을 디자인이 필요했다.

몇 달간 디자인을 고민했다. 디자인 업체에서는 수차례 시안을 건네며 “부산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라고 말했지만 김 대표가 바라던 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었다. 아버지의 꿀이 노력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길 바랐다. 국내외 상품을 벤치마킹하며 ‘허니하우스’만의 상징성을 찾아갔다. 그는 꽃에서 꿀을 얻는다는 기본에 접근했다. 이렇게 완성된 ‘허니하우스’의 꿀은 갓 피어난 꽃에서 꿀을 얻은 것 같은 모양새다.

용기에도 변화를 줬다. 꿀은 모두 택배로 배송하는데 기존 유리병에 담긴 꿀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도착하기 어려웠다. 운송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 차례 시안 변경을 거쳐 용기를 페트(PET)로 바꿨다. 뚜껑도 문제였다. 꿀을 덜다 보면 뚜껑에 꿀이

묻곤 하는데 물로 씻으면 쉽게 녹이 슬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소비자들의 의견이었다. 그는 몇 배의 비용을 들여 쇠뚜껑을 알루미늄으로 바꿨다. 무엇 하나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허점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7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허니하우스는 아카시아(사랑), 야생화(은혜), 밤(지혜), 세 가지 꿀을 내놓았다. 꿀은 밀원에 따라 향과 맛이 달라진다. 꿀의 특징이 꿀에 배어들기 때문이다. 아카시아는 가장 친숙한 꿀로 음식과 차에 많이 쓰인다. 야생화는 산에서 채취하므로 산미(山味)가 가미돼 있다. 밤꿀은 밤나무에서 채취해 달고 쓴맛이 동시에 나고 약으로 많이 쓰인다. 취향에 따라 꿀을 맛보면 되지만 ‘꿀 좀 먹어본 사람’이라면 야생화 꿀을 찾는단다.

허니하우스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1인 기업이다. 월평균 매출은 300만 원. 이마저도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치가 성장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직함으로 만든 천연 제품’이라는 데 바탕을 두면 소비자들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허니하우스의 꿀은 이달 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있으며 꿀비누, 꿀로션 등의 상품 개발에도 주력 중이다.

“아버지와 딸이 만드는 건강한 꿀이 ‘홈 앤드 리빙’으로 생활 전반에 녹아들도록 할 거예요. 곧 선보일 천연꿀 제품도 기대해 주세요.”

전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남극 전문가 홍종국 극지연구소 부소장 “코리안 루트 개척에 앞장, 2021년엔 남극 연구 세계적 수준 될 것”

남극은 수산·광물 등 무한한 자원을 보유한 대륙이다. 동시에 기후 변화 등 인류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제3차 남극 연구 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남극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극을 심층 연구하는 극지연구소 홍종국 부소장을 만나 남극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국(53) 극지연구소 부소장은 남극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바다입니다. 남위 60도 이상을 남극권이라고 하는데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미답지(未踏地)이자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죠. 지구 기후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남극은 특정 국가에 의한 개발과 영유권 주장이 제한된 특수지역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2048년까지 광물 채취·개발이 불가능하고 과학적 조사와 연구 활동만이 가능한 권역이다.

1950년대 중후반 남극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남극에 과학기지를 앞다퉂 건설했다. 이에 비하면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 셈. 그러나 기후 변화 등 남극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온 결과 최근 들어 남극 지역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남극은 역량만 갖춘다면 연구 활동에 제약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남극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 실행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어요. 장보고기지 부근의 ‘난센 빙봉’ 붕괴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고, 남극의 척박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통해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장보고과학기지를 세워 세계 열 번째로 남극 상주 과학기지 두 개 이상을 보유한 국가가 됐지요. 2009년에 건조된 세계

적 수준의 연구 쇄빙선 아라온호가 그 발판이 됐습니다.”

남극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29개국 중에서 쇄빙선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18개국이다. 쇄빙선은 자국(自國) 기지에 물품을 보급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극지 연구 후 발국임에도 일찍이 쇄빙선의 필요성을 인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선박을 갖게 됐다. 아라온호는 1미터 두께의 얼음을 시속 5.5km 속도로 연속 쇄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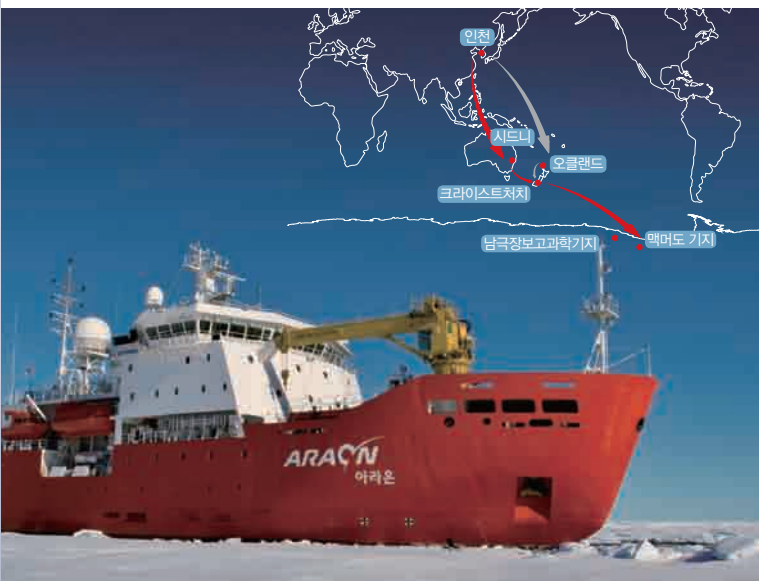
“아라온호가 없었다면 장보고기지를 건설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극지 연구에 쇄빙선이 중요하죠. 아라온호에는 자원 탐사가 가능한 ‘다중채널탄성파탐사시스템’을 포함해 첨단 연구 장비들이 장착돼 있는데 이런 장비를 보유한 쇄빙선은 드물어요. 이렇다 보니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우리와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제의도 많아요. 기후 변화 연구에 중요한 해역인 아문젠해에 쇄빙선으로 정기적인 연구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극지 연구에 결정적 역할 하는 쇄빙선 아라온호

아라온호의 운용·관리를 맡고 있는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이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전체 인원은 400여 명. 극지연구소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에 2002년에 세운 다산과학기지를 두고 있다. 17명의 월동 연구대가



극지연구소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위)와 2009년에 건조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쇄빙선 아라온호

있는 세종과학기지는 한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다. 남극 환경 변화, 대기 관측, 유용생물자원 연구를 주요 임무로 한다. 연구원 16명이 활동하는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대륙 중심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빙하, 기후 변화, 우주, 천문, 운석 등 남극 대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공동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기상, 기후, 대기, 해양 등 연구 목적상 필요한 기간에만 연구 인력이 체류하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홍종국 부소장은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으로 근무했다.

“기지 책임자로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남극의 지각, 지질 구조 연구도 맡았죠. 제가 근무하던 해가 세종기지 설립 20주년이 되던 때였는데 기지 전체를 대수선하는 작업도 맡았습니다.”

북극 해저에 거대한 얼음 자국 세계 최초 발견

월동대장 임무를 무사히 마친 홍 부소장은 2009년 연말 남극 연구 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는 북극 현지 탐사에 몰두했다. 빙하기 때 북극 해저에 거대한 얼음이 스쳐 지나간 흔적을 발견, 관련 연구논문이 2013년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주요 논문으로 게재됐다. 그 이전까지 과학계는 빙하기 당시 북극 동시베리아해에는 두꺼운 얼음이 없었다고 생

각했는데, 그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극지 연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된다. 홍 부소장의 설명이다.

“남극 연구는 고위험, 고비용, 비상업적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비용, 고위험 등의 이유로 그만두면 우리 다음 세대에 절대 기회가 오지 않아요. 현재 우리 정부는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홍 부소장은 “현재 남극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라며 “제3차 남극 연구 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1년쯤이면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남극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남극점이 있는 대륙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코리안 루트가 바로 그 출발선이 될 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운영하는 ‘K-루트 사업단’이 남극 대륙의 미개척 분야를 탐사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이라 자부합니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코리안 루트 개척·기후 변화 해결 등 3대 전략·7대 추진 과제 제시

남극에 ‘코리안 루트(Korean Route)’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남극 대륙 연구 강화를 위해 지금의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이르는 ‘내륙 진출로’ 개척을 추진할 예정. 해양수산부는 4월 6일 ‘제3차 남극 연구 활동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은 1차(2007~2011), 2차(2012~2016) 기본계획 기간에 구축한 연구 쇄빙선 아라온호, 장보고과학기지 등 주요 인프라와 주요 선진국과 국제협력력을 통해 한층 발전된 연구 과제를 담고 있다. 계획안은 ▲국제 현안(기후 변화·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남극 연구 지평 확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지원기반 선진화 ▲남극 과학 연구 및 거버넌스에 대한 리더십 제고라는 3대 전략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7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인 ‘남극 연구 지평 확대’와 관련된 추진 과제로 ▲남극 해빙(解氷)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 등 전 지구적 환경 변화 예측 및 대응 ▲남극점을 향한 독자적 내륙 진출로(코리안 루트) 개발과 세계 최초 2500m 급 빙저해 탐사 등 남극 내륙 진출을 추진한다. 이외에 ▲남극 생물의 유전적 특성을 활용한 극지 생명자원 실용화(항생제 후보 물질, 혈액·줄기세포 냉동보존제 개발) 등 생명공학 부문과의 융합 연구 수행한다.

다음으로 ‘남극 연구 지원기반 선진화’ 전략 추진을 위해 ▲남극 세종기지 증축, 항공망 확보 등 연구 인프라 고도화 ▲산·학·연 협력관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남극 체험·기념행사를 통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 제고’를 위해서는 ▲남극 관문 지역의 협력 거점 운영 활성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남극 연구 파트너십 강화 ▲남극특별보호구역(ASPA)·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등 남극조약체제 주요 현안에 대한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예술은 거부한다 신진 예술가들의 실험무대 ‘대안공간’

예술은 자유를 만날 때 완성된다. 작가는 재료와 공간을 이용해 무한정 예술 세계를 펼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는 신진 예술가들이 잠재 가능성을 발휘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대안공간이다.

공간이 채워진다. 가만히 작품을 보니 미술관에서 보던 것과 다르다. 이것도 작품일 수 있을까? 이곳이 과연 예술 공간일까? 상식과는 다른 공간과 작품에 의심마저 든다. 대안공간은 기존 전시관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적 전시 공간이다. 주로 미래의 잠재 가능성을 가진 재능 있고 실험적인 작가들에게 무대를 내어준다. 정형화된 작품보다 창작 욕구가 분출된 작품이 더 눈에 띈다.

대안공간은 미술계에 자본이 들어오며 상업주의를 벗어나 예술 영역의 독립성·창작성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마련됐다. 대부분의 대안공간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만 예술의 힘을 믿는 사람들로 명맥을 이어간다. 이들은 ‘함께의 가치’를 추구한다.

대안공간은 관객의 방향성도 거부한다. 기존 문화공간이 도심에서 관객을 기다리는 형태였다면 대안공간은 사람들 삶 속으로 침투한다. 지역과 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상생의 교류와 발전을 모색한다. 때문에 구도심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고 문화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 된다. 대안공간은 문화예술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

선수현 | 위클리 공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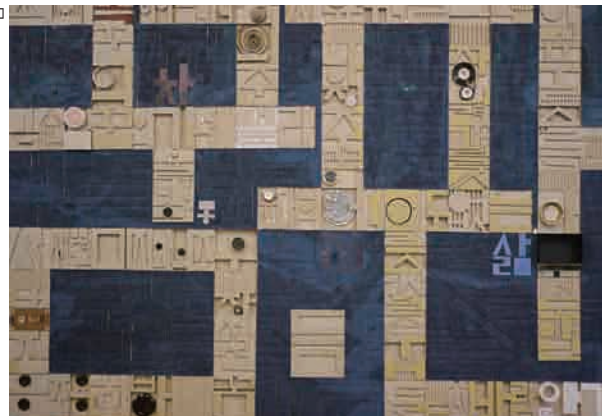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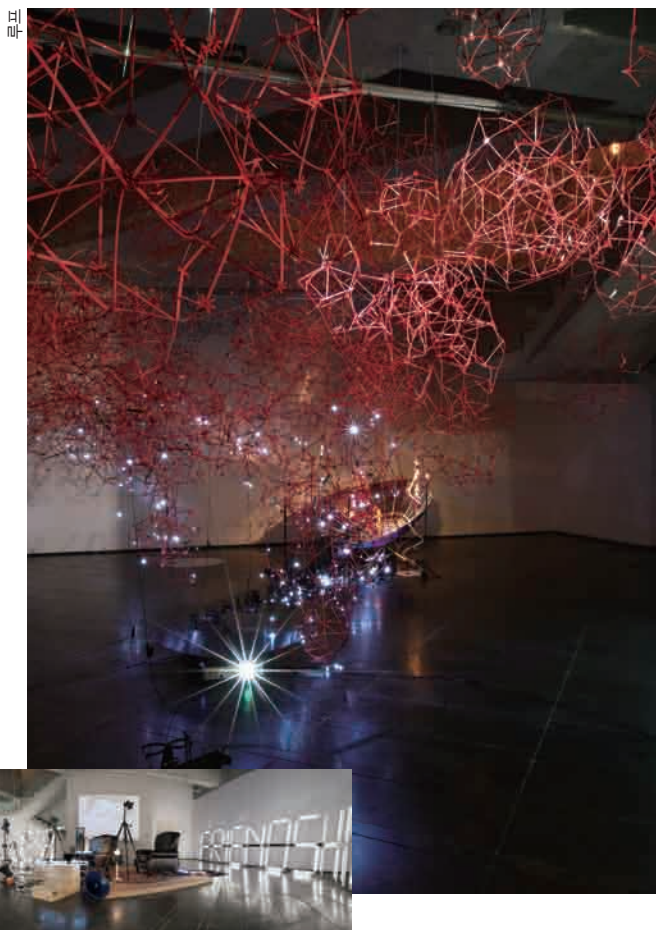
대안공간 루프

젊은 예술가들이 태동하는 자리로 '홍대답다'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대안공간 루프'. 1999년 문을 연 루프도 이곳을 찾는 관람객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젊은이의 감각이 계속해서 더해지며 젊은 예술 정신은 전혀 녹슬지 않는다.

루프는 잠재 가능성을 지닌 재능 있고 실험적인 작가 발굴은 물론, 대안적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국내외 미술계와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문화 흐름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루프의 대표적인 기획으로는 '무브 온 아시아', '감각의 확장', '여론의 공론장', '아시아 창작 공간 네트워크' 등이 있다. 또 무빙 이미지를 주제로 한 영상, 미디어아트 관련 아카이빙, 전시, 네트워킹, 생산, 유통 등으로 특화되고 전문화된 미술문화의 형성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새 단장을 한 '대안공간 루프'는 오는 5월 28일까지 '무브 온 아시아 2017_동원된 표상' 전시를 개최한다. 아시아의 대안적 미술문화 발전이라는 문제의식과 소명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작가가 참여해 아시아가 갖고 있는 동시대적 문제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9나길 20
문의: 02-3141-1377
오전 10시~오후 7시



'대안공간 들'은 2017년 '꿈.판'이라는 주제로 매월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대안공간 들

2014년 문을 연 '대안공간 들'은 인천 신기시장에 위치한 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마을의 일상에 갤러리가 파고들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흙집을 개조해 만든 들은 공간부터 친숙하게 다가온다. 마치 이웃집에 전시공간이 생긴 느낌을 준다.

오늘날 예술이 정형보다 비정형을 추구하는 추세에 있지만 미술이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 때문일까.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진보성, 실험과 도전, 시대정신과 결부된 진정성의 발굴을 통해 인천 지역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자 지역의 젊은 미술가를 발굴하고 오늘날의 미술 현장을 함께 아우르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들에서는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옆 공간에는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2017년 '대안공간 들'은 '꿈.판'을 전시한다. 매월 다른 작가가 '꿈'을 주제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꿈을 기록하고 사색하며 겪은 꿈과 자신의 상관관계를 전시 형태로 드러낼 예정이다. 4월에는 범진용_조용한 방, 5월에는 서재현_미지와외의 조우, 6월에는 차기울_매화몽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인천 남구 주승로 69번길 22
문의: 032-259-1311
오후 1시~오후 9시(월요일 휴관)



'대안공간 눈'은 '예술공간 봄'과 연결되어 실험적인 다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안공간 눈

경기 수원시에 소재한 '대안공간 눈'은 직접 살던 가옥을 개조해 만든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방과 문틀, 마당과 별채 등을 각각의 갤러리로 만들어 작품이 전시된다. 눈은 예술이 지역을 부흥케 한 대표적 공간이다. 1997년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일대를 찾는 관광객은 늘어갔지만, 화성 복원과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주거환경은 점점 낙후됐다.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예술가들이 뭉쳤다. 공간을 계획하고 역사, 문화, 예술이 살아 있는 마을로 만들자 뜻을 모았다. 소박한 마을이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며 '화성—행궁동 벽화마을—대안공간 눈'을 잇는 지역 문화공간은 하나의 관광코스가 됐다. 2011년에는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공간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야말로 지역과 상생하는 대안공간이다. 매년 말 공모를 통해 실험적인 국내외 작가 총 40팀을 선정하고 특별한 숨씨를 갖고 있는 행궁동 주민을 발굴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민에게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눈의 뒷마당을 따라가면 '예술공간 봄'으로 이어진다. 봄은 2014년 뒷집 담장을 털고 집과 집을 이어 새롭게 만든 곳이다. 관람객은 '눈과 봄'을 오가며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눈과 봄' 모두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관 수익금 마련을 위한 카페 또한 예술작품의 향연으로 아기자기한 재미가 쏠쏠하다.

'대안공간 눈', '예술공간 봄'에서는 박세린·김태연·미묘한 관찰, 김도영_내재형상, 이훈한_감각의 자격(5월 7일까지), 민경준_창문 틈 바람소리, 이주하_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조미예·이앙_Prop 전시가 4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82-6
문의 : 031-244-4519
오전 11시~오후 7시(월요일 휴관)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경기 안성시 한적한 자연 속에 위치한 '대안미술공간 소나무'는 전시와 작업실, 소나무 자연미술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 미술 공간이다. 대안공간 중에서도 자연친화적 작품에 집중하며 대도시 전시장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작업과 전시를 펼치는 공간을 제공한다. 자연 속 공간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실내외 전시, 교육, 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대안미술관'이다.

이곳은 1994년 문을 닫은 서울 대학로 소재 '소나무 갤러리'의 정신을 이어 받아 2002년 재개관했다. 젊은 작가 중심의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미술을 발표하는 공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서울에서 안성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사람과 자연을 예술로 승화한 점을 강조한다. 소나무에서는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술을 체험하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특히 이곳은 '학교 밖 교실'을 자처하며 미술 수업 공간도 제공하고 있어 인근 학교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대안미술공간 소나무'는 5월 6일부터 '녹색 게릴라-미술농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회화, 설치, 사진, 드로잉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본 프로젝트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인간의 삶에 끌어들이 자연계와 인간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하며 기획됐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 이박골길 75-33
문의 : 031-673-0904
오전 11시~오후 6시 사전 예약 후 관람(월요일·공휴일 휴관)



대안미술공간 소나무에서는 관람객이 작가와 소통하고 예술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4월 셋째 주

● 미터제 택시 등장

1962년 4월 17일을 기해 미터기(자동요금계산기)를 단 300대의 택시가 서울 시내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먹구구식 요금 계산이 없어지고 정확한 요금으로 운전기사와 손님 간의 시비가 줄었다. 사진은 당시의 택시 미터기.



좌진DB

17일

한국



●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 왕 레이니 3세와 세기의 결혼

1956년 4월 18일 할리우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궁전에서 레이니 3세와 결혼해 모나코 왕비가 되었다. 그녀는 인기 절정이던 26세에 영화계를 떠났다. 켈리는 칸 영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에 갔다가 모나코 왕자 레이니 3세를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렀다. 불행히도 켈리는 1982년 9월 14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은 약혼 발표 직후 모습.

18일



한국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거해 전국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3월 15일의 부정 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시작했으나 국민의 호응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진은 당시 경무대 앞에서 벌어진 시위 모습.

19일



한국

● 장애인의 날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 제정과 함께 장애인 복지를 위한 대책으로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다. 사진은 2016년 4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일

● 덕혜옹주 사망

덕혜옹주는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과 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931년 옛 쓰시마 번주 가문의 당주이자 백작 소다케유키와 정략결혼을 하는 등 인생이 불우했다. 1962년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해 창덕궁 낙선재 내의 수감재에서 거주하다 1989년 4월 21일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사진은 일본 유학 떠나기 직전의 어린 덕혜옹주.



좌진DB

21일



좌진DB

● 아기공룡 둘리 탄생

1983년 4월 22일, 아기공룡 둘리의 생일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가 만화 전문 잡지 <보물섬>에 처음 연재된 날이다. 2003년 4월 22일 스무 살을 맞아 부천시 '아기공룡 둘리'의 부천 명예시민증을 발부했다. 아기공룡 둘리는 한국 만화 캐릭터의 전설로 아직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둘리를 만들어낸 만화가 김수정과 둘리 캐릭터.

22일



한국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1995년 유네스코는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지정을 통해 출판물 장려하고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

23일

푸른 바다, 섬 속의 섬 우도 또는 가파도

국내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치를 자아내는 제주도.
제주도에는 봄이 잘 어울리는 두 개의 섬, 우도와 가파도가 있다.
우도와 가파도는 확연히 다른 제각각의 섬 색깔을 갖고 있다.
우도는 마치 전원 카페처럼 앙증맞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가파도에는 강한 바닷바람에 휘날리는 넓디넓은 청보리밭이 있다.
우도와 가파도의 봄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



우도봉 길에서 내려다보는 발밑 풍경. 검멀레 해변과 마을이다.

섬 전체가 아기자기 예쁜 카페

우도

소를 닮은 섬, 제주도 우도(牛島)다. 우도에 내려 우선 툇간이(툇간이라고도 함)로 간다. 3~4월에 툇(해초류)이 많이 나서 붙은 이름이다. 툇간이로 가는 길목에도 봄이 한창이다. 바다를 향해 쌓아올린 바위탑, 지석묘 한 기, 나무 데크가 바다를 향해 길게 이어지면서 길이 끊어진다. 바닷가에서는 해초류를 거두는 작업이 한창이고 그 뒤로는 툇 튀어나온 우도봉이 보인다.

이어 검멀레 해변과 우도 등대 진입로 앞에 선다. 관광객이 제법 많다. 그래서인지 상가, 민박집도 많다. 검멀레 해안을 바라본다. 우도봉 영일동 앞 동굴 바닥이 까맣다. 검멀레 해변의 ‘검’은 ‘검다’의 준말이고 ‘멀레’는 ‘모래’가 와전된 말이니 까맣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

검멀레해수욕장에는 소의 콧구멍을 닮았다 해서 ‘검은 코꾸멍’이라 불리는 수중 동굴이 있다. 밀물 때는 동굴의 윗부분만 보이고 물이 빠지면 동굴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검은 코꾸멍을 지나면 ‘붉은 코꾸멍’ 동굴도 있다. 동굴 내부가 온통 붉어서 붉은 이름이다. 또 큰 고래가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져 ‘동안경굴’이라고도 부른다. 그 바다에서는

유람선이 소용돌이처럼 휘돌아친다.

우도의 특산물인 땅콩으로 만든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우도에서 가장 높은 우도봉(132m)에 오른다. 길 왼쪽은 막힘없이 트여 검멀레 해안과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우측은 분지처럼 넓은 초지가 펼쳐지는데 그 모습 또한 아름답다. 우도봉을 앞두고 우도 등대가 있다. 1906년 무인 등대로 출발해 97년간 불을 밝히다 2003년 새로운 등대에 그 자리를 넘겨줬다. 그러다 2006년 우도 등대 100주년을 맞아 등대가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

우도봉을 내려와 본격적으로 해안 드라이브를 즐긴다. 제주도의 흔한 돌담도 우도에서 보면 그 느낌이 다르다. 돌담뿐 아니라 바다도, 백사장도 더 아름답다. 봄이라서 그럴 것이다.

비양도를 만난다. 우도 안에도 비양도가 있다. 섬 속의 섬인 섬으로 동비양으로도 불린다. 비양도 입구 우측에는 ‘돈짓당’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라 돌탑이 있다. ‘일출 소원 성취 의자’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바닷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비양도 등대다. 해녀가 물질해 온 해삼과 소리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나선다.

하고수동해수욕장의 바닷물은 울릉도의

코발트 물색을 닮았다. 이곳부터 해안길이 서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진다. 해녀들의 섬 터인 ‘불턱’에 시선을 쫓아보고, 등대 공원의 또 다른 봉수대도 눈여겨본다.

해안길 끝에 산호사해수욕장(서빈백사)이 있다. 겉으로 보면 흔한 모래사장이지만 이 백사장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홍조단괴해빈(紅藻團塊海濱)이다. 홍조단괴란 붉은색을 띠는 바다 식물이 바위에 달라붙어 오랜 기간 동안 퇴적돼 형성된 것을 말한다. 자연과 시간이 오래 교감하며 만들어낸, 신이 내려준 백사장이다. 바닷가 앞의 돌 팻말에는 우도의 역사가 새겨 있다. 조선 중기의 문필가 김정은 ‘우도가’를 지어 “천년 비궁의 모습 깊은 바다에 잠겼다”며 이 섬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막 배를 타고 우도를 벗어나면서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 하룻밤 머물지 못함의 미련이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흰 백사장, 돌담, 돌무덤, 흰 지붕이 각인되는 민가 등, 참으로 아름다운 섬은 주마간산 여행을 하지 말라면서 자꾸 뒷목을 부여잡는다. 사방팔방 어디를 가나 아기자기 예쁜 섬, 우도. 미국 CNN이 운영하는 사이트 ‘CNN go’도 한국에서 가봐야 할 곳으로 우도를 선정했다. 어느 누가 인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1



2



3



4

1 검멀레 해변과 우도 등대. 2 비양도 소원 탑돌. 일출을 보고 소원을 빌면 성취한다는 속설이 있다. 3 하고수동해수욕장. 4 가파 해안길.

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외국인 모두 같은 눈을 가진 것이다.

여행 포인트로 자전거 하이킹을 빼놓을 수 없다. 자전거 하이킹 코스 해안도로는 약 13km이며 2~3시간이 소요된다. 올레 1-1 코스는 천진항에서 홍조단괴해수욕장 등의 바닷길을 거쳐 검멀레해수욕장과 우도봉을 돌아 천진항에서 끝나는 15.9km로 6시간 정도 걸린다.

검멀레 해변 쪽에 식당과 숙박지가 몰려 있다. 그 외 바닷가 주변에 몇 곳이 있는데 산호사 해변 근처에 있는 하하호호(수제 버거)가 만족도 높은 편. 비양도 해녀의 집에선 소라구이, 홍삼 등을 먹을 수 있다.

성산포 선착장에서 우도까지 약 3.8km, 배로 15분 정도 걸린다. 성산항에서 우도로 가는 도항선은 대략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되는데 계절마다 시간이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한다. 왕복 운임은 성인 5500원, 초등생 2200원.

문의 우도면사무소(064-728-4381), 성산항 대합실(064-782-5671), 종달리항 대합실(064-782-7719),

천진항 대합실(064-783-0448), 하우목동항 대합실(064-782-7730)

청보리 파도치는 바람의 섬 가파도

모슬포항에서 배로 25분 거리. 가파도를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값아도(가파도) 그만, 말아도(마라도) 그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깝다. 차는 필요 없다. 내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 해도 2~3시간이면 족한 작은 섬이다. 일부러 재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서두름을 거부한다. 가파도는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사이에 있다. 지도 모양을 보면 마름모꼴 또는 가오리처럼 생겼다. 가파도는 상동과 하동, 중동으로 마을이 나뉘어 있지만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 가깝다. 우측이든 좌측이든 여차피 10리 남짓한 4.2km 거리다.

가파도는 청보리밭으로 유명하다. 60만㎡(약 18만 평) 넓이의 청보리밭 지평선이 그대로 수평선으로 이어진다. 청보리는 바람 탓인지 키가 작다. 예전에는 호프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맥’이라는 보리를 심었지만 현재는 일반 보리를 심는다는 게 주민의 말이다. 상동마을 쪽으로 걷다 보면 시선이 자꾸 우뚝 솟아오른 산방산(명승 제77호)과 형제섬에 꽂힌다. 파도치듯 일렁이는 키 작은 청보리와 산방산이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룬다. 실제로 가파도는 한라산은 물론 송악산, 산방산, 단산, 고근산, 군산 등 제주의 여섯 개 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거센 바람에도 미동하지 않는 네 기의 풍력 단지 가는 길목엔 봄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낸다. 길 양쪽, 발 가운데의 지석묘가 듬성듬성 눈에 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인돌. 그때도 이곳은 사람이 살 만했던 듯하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180여 기의 고인돌 중 무려 95기가 가파도에 있다. 마을에는 초등학교, 개인 사찰, 교회 등이 있다.

마을을 비껴 가파 포구 바닷가에 이르면 작은 등대 두 기가 햇살에 반짝이는 바닷물과 잘 어울린다. 그곳에서 눈길을 끄는 돌담을



5 바람에 몸을 맡기는 가파도 청보리밭. 바다 건너 나즈막한 송악산과 우뚝 솟은 산방산이 보인다.

만난다. 가파도만의 특징을 가진 돌담이다. 제주도의 돌담은 거의 검은색 현무암이지만 가파도에서는 바닷물에 닳은 마석(磨石)을 사용한다. 또 집담과 밭담은 제주도의 다른 지역보다 성글게 쌓는다. 송송 뚫린 구멍으로 가파도의 센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가파도가 얼마나 바닷바람이 심한지를 말해준다. ‘정이월 바람 살에 가파도 검은 암소 뿔이 휘어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이곳을 1653년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의 배가 난파된 곳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조선에서 14년 동안 억류돼 있다가 탈출한 뒤 귀국해서 쓴 〈하멜 표류기〉에 등장하는 ‘케파트(Quepart)’라는 지명이 가파도라고 추정한다. 어찌됐든 가파도의 봄은 화려하다. 심하게 불어대는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고 제멋대로 흔들거리는 넓은 청보리밭 사이를 걷는 재미. 천천히 걷지 말라 해도 절로 여유로워지는 섬. 그곳은 이 봄과 몹시 잘 어울린다.

4월 8일부터 청보리 축제가 한창이다. 5월 7일까지 즐길 수 있다. 모슬포에서 가파도를 잇는 배편은 평일엔 7회, 주말엔 8회 운행된다.

문의 가파리사무소(064-794-7130), 대정읍사무소(064-762-4081~2), 모슬포항(064-794-5490~3). ㉔

이신화 | 여행작가

제주 베스트 명소 & 맛집

세계 100대 아름다운 길 1112번 도로 삼나무 숲길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길이 아주 많다. 그중 1112번 도로에서 만나는 ‘삼나무 숲길’은 단연컨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숫자로 만들어진, 도로 이름까지도 낯선 산간도로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구좌읍 평대리까지 이어진다. 한라산국립공원 북동부 끝 지점에서 시작해 제주시 동부 지역을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며 뻗어나가다 평대리 해안에서 끝나는 이 도로는 ‘삼나무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교래 사거리에서 산굼부리, 대천동 사거리를 지나 송당까지도 가로수로 삼나무가 늘어서 있다. 길고 긴 도로 양쪽으로 하늘 높이 솟은 삼나무 가로수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 각종 영화, 드라마, CF 등의 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이 길은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했다. 차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고 차로 행하니 지나친다면 멋진 풍경을 놓치고 말 것이다.

저절로 건강해지는 사려니 숲길

1112번 도로 초입에서 만나는 물참오름(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갑자기 멈춰 있는 많은 차량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사려니 숲길’을 걸으려는 관광객들 때문이다. 물참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로 총길이는 약 16km다. 왕복 5시간 정도는 할애해야 한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천천히 사색하며 걸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국내 다섯 번째 람사습지 지정 물영아리오름

제주도는 ‘오름 천국’이다. 무수히 많은 오름 중에서도 독특한 곳이 ‘물영아리오름’이다.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분화구 내의 습지다. 여느 오름과 달리 정상부에 형성된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지를 이루고 있다. 2006년 10월, 국내에선 다섯 번째 람사습지로 지정됐고 세계적으로는 1648번째 람사조약 습지로 등록됐다. 분화구에 가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해발고도 508m로 820여 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낮에도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삼나무 군락지다. 분화구 안에 들어서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가장 먼저 느껴진다.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제주 맛집

제주도는 먹거리 천국이다. 갈치회, 고등어회가 특히 유명하다. 또 회국수, 성계국수, 자리물회, 갈치호박국, 갯이죽, 전복죽, 흙돼지구이, 밀면, 말고기, 빙떡 등이 유명하다. 해녀가 파는 홍삼, 소라구이도 좋다. 서귀포 방면에서는 덕성원(064-762-2402, 꽃계짬뽕)이 유명하다. 또 오명가명 쌈밥집(064-763-4034, 쌈밥), 어진이네(064-732-7442, 물회), 남궁미락(064-762-7587, 갈치 요리) 등이 알려져 있다. 표선에 있는 춘자싸롱(064-787-3124, 멸치국수)은 제주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만든다. 특산물을 구입하기도 좋다. 자귀내 포구의 오징어와 한치회, 동문시장의 오메기떡(오복떡집)을 기억하자. 그 외 르에스까르그(064-748-0095)는 기억해둘 만한 빵집이다.

2017 세계경제포럼 평가 발표

한국 관광경쟁력 136개국 중 19위

국내 관광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9위를 기록해 2015년 29위에서 10단계 상승했다.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평가 대상 136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인프라, 환경 조성, 자연과 문화 자원 등 4개 분야와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한국은 2007년 42위, 2009년 31위, 2011년 32위, 2013년 25위, 2015년 29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순위가 오르고 있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이 82위에서 47위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인프라가 40위에서 27위, 환경 조성 분야가 28위에서 24위로 순위가 올랐다. 자연과 문화 자원 분야는 22위를 기록해 2015년 순위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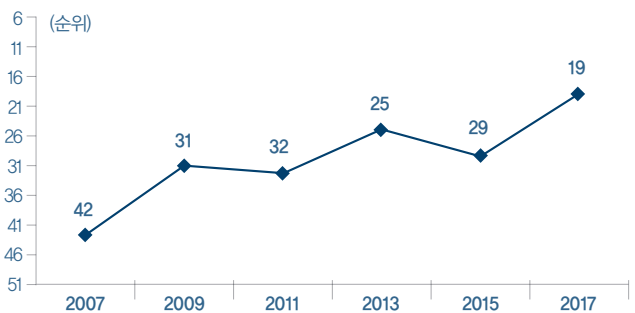
세부 평가 항목에서도 순위가 올랐다. 관광정책 우선순위가 71위에서 63위, 국제 개방성 53위에서 14위, 가격경쟁력 109위에서 88위, 항공 인프라 31위에서 27위, 관광객 서비스 70위에서 50위 등 10개 항목에서 2015년 조사 때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보건위생은 16위에서 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 40위에서 43위, 자연자원 107위에서 114위를 기록해 2015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1위, 2위, 3위를 기록해 2015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경우 9위에서 4위로 5단계 올랐고, 중국은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 규제가 풀리고 관광업계가 서비스 개선 및 관광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반영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표를 관리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 객 유치에도 힘쓰는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체질을 더욱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가현 | 위클리공감 기자

WEF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국내 관광산업 규모 73조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2015년 기준 약 73조 원에 이르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51%에 달하는 수치다.

관광산업의 규모는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를 통해 추정한다. 종전에는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할 때 우리 국민의 국내 관광 지출과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 지출을 합해 추산하거나, 생산 측면에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토대로 한정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방식은 관광산업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 국민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 국내에서 쓴 비용이 기존 연구나 통계조사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지출 측면을 모두 고려한 관광산업 규모는 국민의 국내 관광 지출 25조 4000억 원, 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 17조 3000억 원, 국민 해외여행 시 국내 지출 20조 7000억 원을 더한 63조 400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총액에 빠진 내용이 있어 지출과 생산 부문을 비교해 보정해야 했다.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광 수요인 지출과 관광 공급인 생산을 같다고 전제해 지출과 생산 부분의 세부 항목별 크기를 유형별로 비교해 집계되지 않은 값으로 추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 규모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7대 업종이나 내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 관광산업이 관광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국민 경제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전 국민에 개방

국가 연구개발 관련 정보, 누구나 볼 수 있다!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가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510만 건에 달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4월부터 국민이 연구개발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NTIS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R&D 지식포털 누리집(www.ntis.go.kr)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8월 '2016년도 제2차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NTIS에 수록된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NTIS 국가 연구개발 정보 개방 확대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서비스 개방에 앞서 정보 품질을 개선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 테스트를 거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NTIS 정보를 본격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NTIS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사업, 연구 과제, 인력 정보, 연구

시설·장비, 성과 등 모든 정보가 수록돼 있다. NTIS에서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개발 정보를 검색하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부처와 해당 부처의 사업 공고 내용 및 줄기세포를 연구한 연구원,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기관 등을 알 수 있다.

NTIS에 연구개발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종전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좁고 이용자도 정부 부처나 전문기관으로 제한되어 일반 이용자가 NTIS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NTIS 정보의 개방 범위가 28%에서 70%로 대폭 확대되고, 개인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연구개발 정보 약 510만 건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논문, 특허, 기술 동향 정보 등 약 8000만 건에 이르는 국내외 과학기술 연계 정보도 볼 수 있다. 일반 회원도 NTIS 정보에 접근이 쉬워진다.

서비스 이용 절차도 간소해진다. 정보 이용 신청 시 관리자의 승인 이 날 때까지 대기하던 시간을 없애고 행정 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과거에 정보를 요청했던 이력을 기록해 자주 이용하는 정보는 묶음 형태로 제공한다. 검색 결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회원도 정부의 연구개발 정보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보 개방 서비스가 실시되면 정부 연구개발 정보를 분석해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책 분야 이용자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과학적 근거를 얻을 수 있고, 연구자 간에는 협업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연구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융·복합 과학기술정책관은 "NTIS 정보 개방을 통해 누구나 정부의 연구개발 정보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에 오르면서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요즘, NTIS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NTIS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42-869-1115)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TIS 홈페이지 캡처

장기현 | 위클리 공감 기자

피할 수 없는 죽음, 삶을 완성하는 계기로 만들자 버킷리스트·유서·자서전 등 다양한 웰다잉 준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노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노년이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대하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서투른 배우처럼 쓰러지지 말자”고 조언한다. 인생의 2막에 들어서는 은퇴 시점, 그동안 잘 살아왔다면(well-living) 잘 죽는 것(well-dying)을 고민해봄으로써 연극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노인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죽음이 갑작스레 닥친다면 당사자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날뿐더러 남은 가족은 더 큰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된다. 요즘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남은 삶을 채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입관 체험 통해 삶을 되돌아보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성민(가명·68) 씨는 아직 죽음을 준비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경험을 하고부터다. 자식 둘을 모두 교육시키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노후 걱정은 없겠다 싶던 찰나였다. 그는 4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점차 차도를 보여 지금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만큼 건강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죽음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영정사진을 찍고 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유서를 쓰고 있자니 그동안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후회는 남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났다. 다만 자신의 삶에 미련이 남았다. 그동안 치열하게 사느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행도 다니지만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여유 없이 살아왔다. 유서를 다 쓴 다음에는 입관 체험을 했다. 관에 들어가 누운 후 뚜껑이 닫히니 적막만 흐르는 관 속에서 눈물이 났다.

입관 체험을 하고 난 김 씨는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기로 했다. 유서를 쓰며 느꼈던 삶의 미련을 더는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장례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그는 “장례식에 수천만 원씩 쓸 필요가 있나? 장례식에 쓸 돈을 살아 있는 동안 의미 있게 쓸 생각이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는 허례허식이 있는데 이젠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장례 방법도 생각해왔다. “수목장을 원한다. 매장을 하면 자식들이 묘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바빠서 찾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화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작은 장례란 허례의식과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 간소화한 장례를 말한다. 김 씨와 같이 작은 장례 실천에 서약하면 본인이 수의, 관, 음식 대접, 부고 범위 등의 장례 절차를 미리 정해 유족에게 일종의 유연장을 남기게 된다. 작은 장례에 따라 관은 종이관이나 소박한 관으로 대체하고, 수의 대신 평소 즐겨 입던 옷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문 부고 내지 않기, 부의금·조화 받지 않기, 가족장 중심으로 장례 치르기 등 규모, 절차, 비용 등을 대폭 줄이는 방법이 있다.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김시우 주무관은 “작은 장례 서약에 동참하면 유연장을 적고 관, 수의, 화장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유족에게 남긴다. 평균 1300만~1500만 원 소요되는 장례 비용이 작은 장례에 동참함으로써 500만~6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작은 장례에 참여하면 유족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노년층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늘어나는 추세다.

장례 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장례 방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계청의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매장(묘지)’ 28.6%, ‘화장 후 봉안(납골당, 납골묘 등)’ 37.3%,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등)’ 31.2% 등의 순으로 장례를 원한다고 답해 2011년 각각 38.3%, 31.7%, 25.0%와 차이를 보였다. 고령화 사회, 가족 구조 변화,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앞으로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장례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삶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는 '자서전 쓰기'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나이가 들어 '나도 한 번 살아
온 길을 정리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자서전을 쓰는 일반인이 늘고 있
다.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현수(65·사진) 씨도 지역 복지센터
에서 '자서전 쓰기' 모집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자서전을 써보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자신이 없었다.
특별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책을 쓸 만큼 문장력이 뛰어나지도
않아서다. 하지만 매주 기억을 더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꽤 괜
찮은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서전 집필, 나를 인정하고 정리하는 기회

자서전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적어나가는 것이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다 보면 잊고 있었던 옛날 일
이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추억에 젖기도 한다. 주제를 고르기도 어렵
지 않다. 부모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추억, 여행 일화 등 대부분이 소
소한 일상으로 채워진다. 이 씨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
지 솔직하게 쓴다. 밝히기 망설여지는 내용도 있어 자존심이 상하기
도 하지만 나를 인정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더욱이 자서전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서전에는 이 씨가
기억하는 자기 자신, 부모님, 가족, 친구들이 등장했다. 주변 사람이
함께 기록되는 셈이다. 이 씨가 자서전을 쓰자 아들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관심을 갖고 물어보더라고 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
면 이 씨는 자서전을 고령의 어머니에게 선물할 생각이다. 자서전에
자신과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 자서전을 계속 써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10여 명이 모여 공동 자서전을 만들고 출판기념회도 열
었다. 자서전을 쓰면서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맛본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서전 쓰기
를 권한다.

자서전은 유명인사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쓰는 것이
라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모두의 인생에서 주
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독자가 있는 글
이 아니기에 자서전은 고백에 가깝게 써
내려가면 된다. 글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사진과 삽화를 혼합한 형태부터 녹화·
녹음 등 동영상 자서전까지 다양한 형
태가 있으니 자기에게 편한 형태를
골라 시작하면 된다.



공동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
이현수 씨

웰다잉 준비를 통해 삶을 완성하는 기회를 갖자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드는 과정에 있다면 웰다잉 준비를 통해 삶을 완성하는 단계를 거쳐
보면 어떨까. 천상병의 시 '귀천'의 한 구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버킷리스트 쓰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체력, 시간, 건강이 허락한다면 제약이 덜하므로 버킷리스트 작
성과 실천은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유서 쓰기: 유언장에 가장 많이 적는 말이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
고 한다. 평소 주변 사람들과 이 말을 나누고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서전 쓰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정리하고 자신에게 고백하는 기
회를 갖는다면 남은 삶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용서와 화해하기: 아름다운 이별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마음에 담아뒀던 일이 있다면 조금씩 털어내는 연습을 하자.

사전 의료 의향서 준비하기: 치료가 불가한 상태의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사전에 준비한다면 차후 가족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다.

사전 장례 의향서 준비하기: 자신의 뜻에 따라 상장례가 이뤄지도록 작성한
다. 관, 매장 방법, 수의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입관 체험: 가상 죽음 체험을 통해 남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참고: 대한웰다잉협회

'에하늘' 장사 종합 서비스

정부는 매장 위주 장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
모하고 있다. 특히 화장장 예약, 장사 시설 찾기, 장례용품 가격 정보 등을
'에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장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사 관련 상담 '에하늘' 장사도우미: 1577-4129

누리집: www.ehaneul.go.kr

은퇴자의 자서전 집필을 독려하는 장영희 자서전 쓰기
사업단 단장은 "자서전 집필은 자신이 살아온 길에
서의 안타까운 점, 용서할 사람 등을 스스로에
게 고백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심정을 적어
보면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며 "그동안 살
아온 삶을 반추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돼 아름다운 마무리
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항쟁’의 조선 궁궐·왕릉 이야기 14

비운의 궁궐 경희궁 세계문화유산 종묘

1623년에 완성된 경희궁은 원래 선조의 다섯째 아들 정원군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정원군의 집에 왕의 기운이 서린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을 빼앗아 그 자리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광해군과 정원군은 이복형제였습니다. 그런데 1615년 정원군의 아들인 능창군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광해군은 풍수지리에 근거한 소문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원군의 집터는 정말 ‘왕기가 서린 곳’이었나 봅니다. 결국 반정에 의해 그 터에서 임금(인조)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경희궁은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많이 훼손된 궁궐입니다. 훼손이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고 하는 편이 나올 정도입니다. 1910년 일본인 학교인 경성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궁궐 건물이 헐렸고 1980년까지는 이 자리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경희궁의 전각이 몇 개 복원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경희궁의 정문은 흥화문(興化門)입니다. 지금의 흥화문은 광해군 때 지어진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 박문사(博文祠)를 서울 장충동에 지으면서 정문으로 쓰기 위해 1932년 흥화문을 떼어갔지요. 박문사는 광복 이후 없어졌지만 흥화문은 경희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장충동 그 자리에 들어선 신라 호텔 영빈관 정문으로 쓰였습니다. 비운의 흥화문이 경희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88년입니다.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崇政殿)은 최근에 복원된 것이고 광해군 10년에 지어진 원래의 숭정전을 보려면 서울 장충동의 동국대학교로 가야 합니다. 일본은 1926년 숭정전을 일본 사찰에 팔았고 그 후 숭정전은 동국대학교에서 정각원(正覺院)이라는 불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희궁 복원 때 제 건물을 옮겨오지 않은 이유는 목재가 너무 낡았고 이미 불교 건물의 성격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경희궁 가장 안쪽에는 서암(瑞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그 아래 암천(巖川)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상서로운 바위라는 뜻을 가진 서암의 본래 이름은 ‘왕암(王巖)’이었답니다. 이곳에 왕기가 서린다는 소문이 돈 것은 이 바위 때문이었다고 하지요. 경희궁 궁궐 전체가 사라졌던 것을 생각하면 옛 궁궐터의 유일한 흔적인, 그래서 이곳에 궁궐을 다시 복원하는 기초가 되어준 서암이야말로 진정한 왕암이라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궁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시설은 종묘입니다. 태조는 즉위 3년 만에 종묘를 건립하고 자신의 선조인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의 신주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종묘도 다른 궁궐과 다름없이 많은 수난을 겪었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란에 불타고 증축과 개축을 통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종묘제례가 폐지되어 왕실을 돌보는 이왕직 주관으로 종묘에 향불만 간신히 올려야 했지요. 그렇게 명맥이 이어져 1969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지내는 종묘 제례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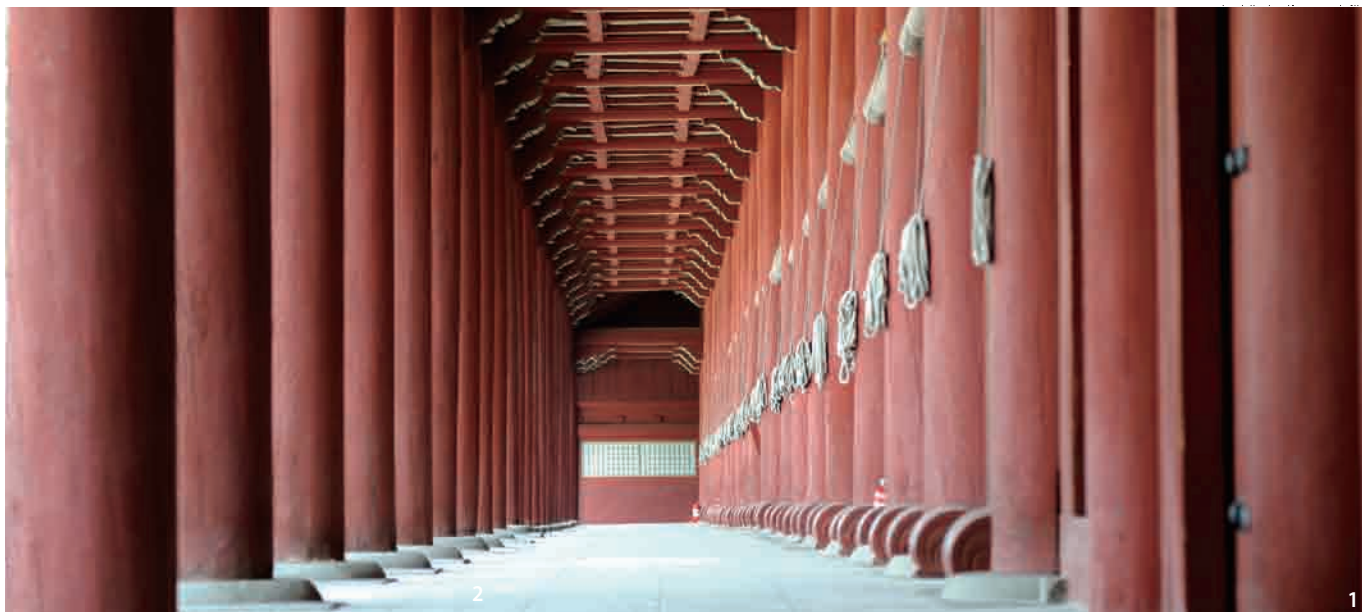
종묘의 중심 건물은 정전입니다. 정전에는 20개의 붉은 기둥이 정연하게 늘어서서 장관을 이룹니다. 그 기둥으로 나뉘는 신실 한 칸에 한 분씩의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정전은 좌우 협실까지 101미터의 긴 건물입니다. 지붕의 기울기가 가팔라 지붕이 더욱 크게 눈에 띕니다.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19명의 왕과 왕비 30명의 신주가 봉안돼 있습니다. 서쪽부터 뒀대 왕을 봉안하니 태조가 맨 왼쪽, 순종이 맨 오른쪽에 모셔져 있지요.

정전 뒤편에 있는 영녕전은 정전에 있던 4대 선조, 즉 목조, 익조, 탁조, 환조의 신주를 다른 곳에 모시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처음 지을 때는 4대 선조를 모신 가운데 태실 네 칸, 양옆 익실 각 한 칸으로 모두 여섯 칸이었는데, 증축을 거듭해 지금은 총 열여섯 칸 규모가 되었습니다. 영녕전에는 임금 16명, 왕비 17명의 신위를 모셨습니다.

정전에 모셨던 신주 가운데 7대 이상은 영녕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치적이 큰 왕은 ‘불천위(不遷位)’라 하여 그대로 정전에 모셨지요. 그래서 정전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처음 지을 때 일곱 칸이던 것을 명종 때 네 칸, 영조 때 네 칸, 다시 현종 때 네 칸 증축해 열아홉 칸이 된 것입니다. 또 종묘에는 광해군, 영조, 현종 때 세 시기의 건축 양식이 공존합니다. 증축할 때는 기존의 건물에는 손대지 않고 동쪽에 네 칸을 덧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서쪽으로 늘리면 태조의 신위를 옮겨야 하고 더욱이 서쪽에 영녕전이 바짝 붙어 있어 칸을 덧붙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월대에는 당시 설치했던 계단을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전 내부는 모두 통해 있고 빗장은 중앙에 하나만 있습니다. 신실문 밖에 발이 있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열고 발을 내리고 지내지요. 신실문의 판창도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서쪽 문은 아래쪽에, 동쪽 문은 위쪽에 틈을 만들어놓았지요. 좌우가 다른 것은 음양의 조화 때문이고 위아래로 틈을 낸 것은 위로는 혼(魂)이, 아래로는 백(魄)이 드나들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영녕전의 바깥쪽 빗장은 세 개인데, 가운데 태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㉔

황인희 | 역사칼럼니스트



1,2 종묘의 중심 건물은 정전이다. 정전에는 20개의 붉은 기둥이 정연하게 늘어서 장관을 이룬다.
3,4 4대 선조에 제를 올리는 종묘제례는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다가 1969년 이씨 대동종약원 주관으로 복원되었고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 지금의 숭정전은 최근 복원된 것이고 원래 숭정전을 보려면 서울 장충동의 동국대학교로 가야 한다.
6,7 영녕전은 목조, 익조, 탁조, 환조의 4대 선조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다. 처음엔 여섯 칸이었으나 중축을 거듭하여 열여섯 칸 규모로 커졌다.



꽃, 사람이 있어

‘문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 김춘수(1922~2004)의 ‘꽃’이다. 시의 해석은 읽는 사람 마음이다. 이름이 불리기 전에는 꽃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의미가 부여됐다는, 실존과 언어에 대한 이 시도 마찬가지다. 사랑에 투영시켜 상대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꽃은 ‘시’의 언어다. 꽃만큼 시의 소재가 된 것도 없다. 꽃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맞이하는 따스한 봄날에 핀 꽃을 만나면 김춘수의 시처럼 내가 시로 불러주면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은 마음이다.

누군가는 그랬다. “열매 한 아름보다는 꽃 한 아름을 받겠다”고. 열매는 끝이고 꽃은 시작이다. 열매는 결과고 꽃은 과정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란다. 물론 삶에 비유한 이야기다.

김소월의 시 ‘산유화’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도 흔히 삶에 투영된다. 생성과 소멸, 고독하지만 겸허한 존재. 시는 읽은 이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굳이 해석을 따를 이유는 없다. 공자의 말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뽐내려 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인들 누가 탓하랴.

꽃 이름도 그렇다. 김춘수의 시처럼 누군가 불러주면서 ‘그 무엇’에서 ‘꽃’이 되었듯, 그 모양과 색깔이 서로 다른 꽃들도 누군가가 저마다 구분해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저마다 꽃이 됐다. 어떤 꽃은 모양에서, 어떤 꽃은 비슷한 다른 꽃에서, 또 어떤 꽃은 전설과 신화에서 이름을 가져왔지만, 누가 언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는 꽃들이 대부분이다.

어디 그뿐이라. 아직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혼자서 저만치 피어 있어’서, 아니면 너무나 수줍어 아주 잠깐 피었다 사라져 ‘이름’조차 갖지 못한 꽃들이 수도룩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와 풀은 저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을 감안하면 식물도감에 나오는 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당당하게 ‘꽃말’까지 붙은 꽃은.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이고, 벚꽃은 순결과 미인, 개나리는 희망과 기대와 깊은 정이다. 매화는 고결하고 맑은 마음, 철쭉은 정열과 사랑의 기쁨이며, 동백은 진실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이다. 목련은 고귀함을, 유채꽃은 명량과 쾌활을 상징한다. 같은 꽃이라도 색깔에 따라 꽃말을 달리 붙인 것도 있다. 붉은 튜립은 사랑의 고백이고,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흰색은 실연이다. 목련도 흰색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의미한다. 동양과 서양의 꽃말이 다른 것도 있다.

꽃의 특징과 상징성을 가지고 붙인 것이지만, 이 또한 순전히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꽃말에 유난히 ‘사랑’과 ‘희망’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고 화두를 던진 성철 스님의 눈으로 보면 어이없거나 가소롭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꽃은 꽃일 뿐이지만 인간은 멋대

로 이름을 붙이고 꽃말까지 달아 본래 꽃의 존재를 가두고 속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으로는 당연하다. 인간이 이름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부터, 아니 인간보다 훨씬 앞서 꽃은 있었기에 '본래 그대로' 곧 자연적 존재 그 자체야말로 진리다.

그렇더라도 꽃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만나야 하고, 이름을 얻어야 하고, 의미를 가져야 한다. '산에 혼자서 저만치 피어'만 있다면 단지 자연일 뿐이다. 그 자연이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언어와 선율과 이미지와 만날 때에야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된다.

독일의 하이데거가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언어에 의해 꽃은 김춘수의 시처럼 그 무엇에서 벗어나 의미가 됐고 시가 됐다. 화가는 그림으로 그 의미를 담았고, 작곡가에게는 음악이 됐다. 시와 음악과 그림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4월 매주 금요일마다 봄빛 가득한 고궁의 정취를 담은 덕수궁의 '정오 음악회'처럼 가만히 음악과 어울리는 풍경만으로도 꽃은 문화다.

굳이 문화와 어울리지 않아도 된다.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 멀리 경남 진해에서, 그리고 서울 여의도에서 끝난 벚꽃축제가 그렇고, 아직도 전국 곳곳의 산과 들과 공원에서 이어지는 꽃의 축제들이 그렇다. 충남 태안에서 5월 10일까지 열리는 세계튤립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모여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든다.

이달 30일부터 시작하는 경남 합천 황매산철쭉제는 또 어떤가. 산 전체가 진분홍 '철쭉 바다'가 된다. 철쭉은 경기 군포에서도 축제 시간(4월 28~30일)을 기다린다. 해마다 참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대구 비슬산도 꽃과 사람, 놀이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날(4월 22~30일)을 기다린다. 경기 고양에서는 아예 세계의 봄꽃들을 다 불러 모은 꽃박람회(4월 28일~5월 14일)를 연다. 인천 강화 고려산에서는 아직도 진달래 축제(23일까지)가 계속되고 있다.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마당이 아니어도 좋다. 뒷산, 작은 공원과 놀이터에도 꽃은 있다. 아직도 벚꽃은 눈부시게 남아 있고, 아파트 공터나 화단에서는 개나리가 활짝 웃고 있다. 작은 봄바람에도 눈 내리듯 떨어지는 벚꽃, 탐스러운 목련도 고개만 들면 보인다. 가수 송창식이 노래한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동백꽃도 여수 오동도나 고창 선운사에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

시와 그림이 아니어도 좋다. 봄 햇살을 받으며, 달빛을 밟으며 그 꽃들 사이로 걸으면서 향기를 맡고 꽃과 함께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면 그것이 나의 축제고 문화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많은 꽃도 나의 삶과 기억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나가는 풍경이 된다. 그 풍경을 문화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2017년 봄은 다시 오지 않으며, 봄은 또 바람처럼 지나가고, 꽃은 진다. ㉔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의 '시가 흐르는 광장'에 새봄을 맞아 봄을 노래한 시들이 걸려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드라마 갖춘 전통 무용극

공연 | 련, 다시 피는 꽃

‘련, 다시 피는 꽃’은 조선 왕실을 배경으로 한 전통 무용극이다. 궁 제일의 무희인 서련이 조선 왕실에서 겪는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통 설화인 도미부인 설화와 이공본풀이를 조합해 풀어간다. 삼국시대 설화인 도미부인은 호색한 왕이 아름다운 도미부인을 탐했으나 부인의 기지와 절개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 곳에서 주연되는 이공본풀이는 종살이를 하며 주인에게 온갖 시련을 당하다 죽은 원강암이를 남편 사라도령과 아들 할락공이가 서천 꽃밭의 되살아꽃으로 되살려낸다는 내용이다. 공연에서는 우리 전통 악기인 주발과 손복이 내는 가락에 맞춰 궁중 무용, 전통 군무의 진수를 보여주는 일무가 펼쳐진다.

기간 10월 29일까지

장소 서울 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이번주엔 뭐하고 놀지?

조선시대 문(文)과 무(武)를 상징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난중일기>가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과수를 소재로 스페인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도 주목할 만하다. 110여 년의 비행기 역사를 한 권에 담은 책 등 이번 주 역시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감성 스케치 여행

책 | 조금 늦어도 괜찮아

저자가 표현한 감성 스케치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미처 보지 못한 태국과 라오스의 속살과 그들만의 풍경이 보인다. 그의 섬세한 감성이 책 곳곳에서 살랑살랑 춤을 춘다. 저자 김동범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복도와 교과서에 온통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로 낙인찍힌 채 자랐지만 꿈꿔왔던 그림으로 먹고사는 직업을 가졌다. 저자는 일 년에 한 번은 무조건 여행을 떠나자고 결심한 이후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책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저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 김동범(호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영화 | 오두막



가족여행 중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맥에게 어느 날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발신인은 정체불명의 ‘파파’라는 사람. ‘파파’라는 사람은 딸을 잃은 그 오두막으로 딸의 아버지를 초대한다. 맥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오두막으로 향한다. 오두막에 도착한 맥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분위기의 세 사람과 만나고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한다. 이 영화는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절망과 상처를 치유해가는 여정을 그렸다.



개봉일 4월 20일

세종의 지혜, 이순신의 용기

전시 | 훈민정음과 난중일기: 다시, 바라보다

조선시대 문(文)과 무(武)를 상징하는 두 인물의 대표 저작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70호)과 <난중일기> (국보 제76호)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이 한글 창제의 이유와 용법, 해설 등을 담아 1446년 펴낸 서적이다. 또 다른 국보인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세종의 명으로 신숙주, 박팽년 등이 1448년 편찬한 한자 표준음에 관한 책이다. 아산 현충사에 있는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친필로 쓴 일기 7권을 묶은 서적이다. 이번 전시에는 <난중일기> 외에도 이순신 장군이 벽에 걸어두고 바라봤던 칼인 장검(보물 제326호), 인조가 1643년 '충무공'이란 시호를 내린 교지인 '증시교지(贈諡敕旨)'(보물 제1564호)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기간 10월 12일까지

장소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문의 02-2153-0000



한 권으로 보는 비행기 역사

책 | 비행기 대백과사전

최초의 글라이더에서 차세대 전투기까지, 한눈으로 보는 비행기 110여 년의 역사. 인류 역사에 날개를 달아준 비행기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DK 대백과사전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도감형 비행기 대백과사전이다. 이 책은 1550컷의 선명한 이미지와 장조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감수를 거쳐 더욱 탄탄한 대백과사전으로 거듭났다. <비행의 시대: 77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항공 우주 과학 이야기>의 저자이기도 한 장조원 교수의 표현대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술을 구현하는 첨단 과학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동경과 철학의 결정체”다. 인류에게 날개를 달아준 비행의 매력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끽할 수 있다.

저자 필립 화이트먼(울간이 이민아, 정병선·사이언스북스)



미술의 미래를 만나다

전시 |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전에서는 권소영 작가, 김태화 작가, 박용일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권소영 작가는 수묵과 동양 채색 기법으로 여행지의 풍경을 표현했다. 김태화 작가는 고고한 매력을 지닌 모란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을 화폭에 담았다. 주로 달동네 등 우리 주변의 친근한 곳에서 영감을 얻는 박용일 작가는 개인의 회로애락을 담은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2관에서는 김초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김초혜 작가는 꽃을 모티브로 아름답게 꽃피는 사람의 일생을 표현했다. 아크릴을 비롯한 혼합 재료와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해 회화적 감성과 시적 정서를 나타냈다.

기간 4월 29일까지

장소 서울 슈페리어갤러리

문의 02-2192-3366

서울에 괴수가 나타났다!

영화 | 콜로세움



뉴욕에서 남자친구와 살던 글로리아는 직장상사와 남자친구를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글로리아는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거대 괴수

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 큰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글로리아는 서울로 향한다. 지금까지의 괴수 영화들이 위협적인 존재였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괴수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주인공과 괴수의 엉뚱한 소동을 담은 이 영화는 10~15% 분량을 서울과 부천에서 촬영했다. 스크린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 등장하는 괴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개봉일 4월 20일

꽃을 진정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귀 기울이면 사그락사그락 꽃피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계절, 봄이다. 한글 전용으로 어느덧 한자(漢字)가 낯설게 된 젊은 층은 거의 모르는 말이 되었지만 적어도 60대 이상이라면 ‘화란춘성(花爛春盛) 만화방창(萬化方暢)’을 기억할 것이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 매여 무리 지어 핀 꽃들이 손짓하는 산으로 들로 한달음에 달려갈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에게 연민마저 느껴진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이 한창인 것이 ‘화란춘성’이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만물이 화육(化育)의 계절을 맞아 다투어 번창하는 것이 ‘만화방창’이다. 봄날의 생기와 자태를 이처럼 겨우 여덟 글자로 곡진하게 그려낸 문구도 드물 것이다. 우주에 관한 감각이 남달랐을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Carl Sagan)은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天體)’를 지구라 했고 ‘찰나의 순간’이 인간의 한평생이라고 했다. 아하! 칼 세이건은 자기보다 1233년 앞서 난 이백(李白)과 어찌 그리 닮았을까?

이백이 지은 천하의 명문(名文) ‘봄밤에 복사꽃 배꽃 핀 동산에서 주연을 벌이며(春夜宴桃李園序)’의 내용이다.

하늘과 땅은 만물의 여관이고 사람의 생애는 영원한 시간을 스치듯 지나가는 길손이다. 덧없는 삶은 한바탕 꿈일진대 그중에 진정 즐거운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진(晉)나라 사령운(謝靈運)이 밤 시간이 아까워 부하들에게 횃불을 들고 늘어서게 해놓고 산간의 밤경치를 즐겼던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이것 때문에 반란을 꾀한다는 모함을 받아 목숨을 잃기까지 했지만 말이다. 하물며 파스 한 봄날의 아지랑이 낀 풍경이 나를 부르고 봄을 맞은 대자연의 온갖 아름다운 경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이를 즐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은 밤이 이슬하도록 옥으로 장식한 대자리를 깔고 꽃 그늘에 둘러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밝은 달빛 아래 취토록 마시고 볼 일이다. 이럴 때 시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 흥겨운 기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저 천하제일의 거부(巨富) 석송(石崇)이 금곡원(金谷園)에서 그랬던 것처럼 벌주 세 되를 마셔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리라…….

밝은 달, 향기로운 술, 주당(酒黨), 봄꽃,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 되겠지만 복사꽃, 배꽃 같은 봄꽃이 없다면 달은 빛을, 술은 맛을 단박에 잃을 것이고 주당은 아무 데나 실례하는 주정뱅이에 지나지 않으리라.

꽃은 여름에도 그리고 가을에도 핀다. 그러나 긴 긴 흑한을 이기고 피는 봄꽃이야말로 꽃 중의 꽃이 아니겠는가? 마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다다른 위인처럼 말이다. 조선 후기 시인 조구명(趙龜命)은 ‘눈 내린 뒤 뜬 달(雪後得月)’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아쉬워하지
世人每恨月與花(세인매한월여화)

피었던 꽃 떨어지고 보름달 이지러짐을
花不常開月有缺(화불상개월유결)

꽃과 달이 언제나 그 모습이라면
若使花月眞長在(약사화월진장재)

꽃과 달의 귀함도 모를 거면서
人情却不貴花月(인정각불귀화월)

꽃이 늘 피어 있고 달이 늘 밝게 떠 있다면 비록 천하달 순 없어도 귀하달 건 못 된다. 그러나 진정 꽃과 달을 아름답고 유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의 혼과 정감이 녹아 들어가야 꽃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 미소 짓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천지시간(天地之間) 만물지중(萬物之衆)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하다(惟人最貴)고 했던 것이 아닐까.

유병례 | 성신여대 중문과 교수



호기심에서 시작한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 행위의 시작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이제 그만!

건전한 스포츠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스포츠 도박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사행행위 신고 시 최대 2천만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행위 신고전화

1855.01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두근두근, 나의 소중한 선택”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진세연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신 있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장나라



“함께 할 수 있어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정애리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 5월 4일(목) ~ 5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5월 9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